

제2047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조국·임종석 출석 '국회 운영위 공방' 4



롯데월드타워 기준시가 m<sup>2</sup>당 914만원 '최고가' 18

코스피 (12월 28일(2017년 말 대비))  
2036.70 (-402.61P)  
코스닥  
670.83 (-120.93P)  
환율(달러당 원화)  
1115.70 (+45.20원)  
금리(국고채 3년물)  
1.817% (-0.318%p)

己亥年, 경제에도 다산과 풍요가...



2019년 황금돼지해인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다. 예로부터 돼지는 복(福)의 근원, 집안의 재산(財神)을 상징하는 길상의 동물이다. 새해에는 우리네 삶이 밝고 풍요롭길 기원한다. '우리흑돈' 돼지 가족이 태양이 막 떠오르는 충남 천안시 성환읍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내 드넓은 초지를 부지런히 다니며 제 몸을 살찌우고 있다. 천안=오승현 기자 story@

## 불확실성 안고 출발한 한국 경제

성장률·고용·수출 더 어렵다  
부동산·주식시장 '조정장세'  
국내외 악재 이겨낼 돌파구 절실

황금돼지해인 기해년(己亥年)이 밝았지만 한국 경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경제성장률 정체, 고용 악화에 수출 증가율이 둔화하고 부동산·주식 시장은 조정기에 들어가는 등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11·14·15·16면  
우선 경제성장률은 정체 또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6~2.7%로 지난해와 비슷하게 전망했다. 국책·민간 연구기관들은 대체로 2% 중반대로 정부보다 비관적으로 전망한다. 이는 잠재성장률(2.5~2.6%)을 소폭 밀들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6000억 달러를 돌파한 수출은 올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과 유럽에 이어 최근 미국 경제마저 악화 조짐을 보이는 등 세계 경제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반도체 가격 하락 압력과 출하량 감소,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 관련 제품 수출 감소 등으로 수출 증가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소비는 다소 둔화하고 건설투자도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 경기 전망도 어둡다.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비철금속, 풍력 6개 업종 중 지난해 상반기보다 경기 전망치가 상승한 업종은 없다. 반도체는 꺾이는 상황이고 나머지 업종도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주식 시장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지난해 폭락 장세를 이끈 미·중 무역 갈등과 글로벌 금리인상 기조가 지뢰로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코스피지수 상단으로 2200~2400포인트를 점치고 있다. 2017년 말 종가(2467.49)보다 낮고

2016년 말(2026.46)보다는 높은 수치다. 물론 2400포인트 이상 우상향 흐름을 그리지는 긍정적 시각도 적지 않다. '휴전' 상태인 미·중 무역전쟁이 재발할 가능성(2월 말)과 브렉시트 현실화(3월 말), 중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지수(MSCI) 신흥국(EM)지수 편입(5월 또는 8월) 등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수다.  
부동산은 지난해와 같은 주택 과열현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대다수가 조정 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투자심리 위축이 지속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차민영 기자 blooming@

세계로 뻗어가는 K-바이오 12  
신남방정책 13

##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위헌 소상공인연합회 헌법소원 제기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금 시행령대로라면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면서 장사 못한다. 정부가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할 범법자가 되든지, 아니면 사업을 접을지를 선택하라고 공지에 몰아넣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1일 주휴시간이 포함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주휴시간과 수당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관련기사 3면  
연합회는 “정부가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이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

부를 경시하고 우리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이번 개정안으로 극한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분노를 모아 강력한 항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가 가장 크게 반발하는 부분은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하루치의 유급휴가다. 연합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에 주휴수당 포함 시 실질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다. 실질 최저임금이 1만 원보다 높으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입장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국회는 논란만 야기하는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장방인의 조속한 논의를 시작하고 상위법령인 최저임금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기분 좋은 꿈과 함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롭게 가진 꿈도  
소망하던 다짐도  
2019년 새해에는  
모두 다 잘될 거예요

SAMSUNG

### “경제 재도약 위한 구조개혁 전기 마련”

#### 홍남기 경제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정치권, 기업, 노조, 시민단체 모두 위기감과 절박함을 가지고 상생 협력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지금 필요한 것은 사회적 대타협과 실천이다. 특히 사회적 대타협은 포용적 성장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올해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높여 가는 가운데 경제정책의 일차적인 역점을 ‘경제의 활력 제고’에 둘 것”이라며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가계와 기업 등 각 경제 주체들이 희망을 갖고 소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지만 소득 기반 강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



한 포용적 성장, 미세먼지 없는 맑은 공기와 같은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도 반드시 진전시켜 나가겠다”며 “나가야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의 전기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단 “정부의 경제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모든 경제 주체들의 합심된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규제혁신, 산업구조 개편 및 노동시장 개혁 등 10년 넘게 지체되거나 미뤄져온 과제들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9년도가 사회적 대타협의 원년이자 경제 활력을 되찾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된 해로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자신감과 희망을 갖고 함께 뛰자”고 당부했다.

###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금융안정 유의”

#### 이주열 한은 총재

“우리 경제가 2%대 중후반의 성장세를 보이고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완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이 과정에서 경기와 물가 흐름 등 거시경제 상황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겠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신년사에서 “완화 기조의 장기화가 금융 불균형을 심화할 가능성, 그리고 이런 불균형 누적이 중장기적으로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한층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에서 한층 후퇴한 것이다.

이 총재는 다만 “올해는 금융·외환시장 안정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미국과의 정책금리 역전폭이 확대된 상황에서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지속 등으로 글로벌 위험회피 성향이 증대될 경우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대외 리스크 변화가 금융시장 가격 변수와 자본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시장 변동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금리가 0.75%포인트 역전한 상황에서 올해에도 미국이 추가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 총재는 이어 “구조 조정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성장의 원천이 될 선도산업을 발굴·육성하는 것은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

### “자동차·조선 활력 제고 노력”

#### 성윤모 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산업부는 경제와 산업의 활력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신년사에서 “우선 지난해 말 발표한 제조업 혁신 전략과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제고 방안,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겠다”며 “지자체와 함께 14개 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자동차·조선 업종의 일감 확보, 세제·금융지원 방안도 차질 없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성 장관은 “소재·부품·장비는 1조 원 수준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자립화를 넘어 글로벌화에 매진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이차전지 산업은 대규모 투자와 기술개발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후발국과의 초격차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 “안전·편안한 일상·성장 역점”

####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안전과 편안한 일상, 그리고 성장을 새해 키워드로 꼽았다. 김 장관은 “새로운 기본권인 안전이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생활 전반의 안전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요 기반 시설 등의 현황을 파악해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건설현장 등에서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더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위해 맞춤형 주거 지원을 더욱 촘촘히 하고 고시원·쪽방 등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사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한 정책 대안 마련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조성, GTX 건설, 광역버스 투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에게 여유로운 아침, 함께 하는 저녁 시간을 돌려 드리고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인프라 사업 조기 추진과 생활 SOC 공급 등 지역 경제가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4차산업혁명 혁신성장 총력”

#### 유영민 과기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자동차, 조선과 같은 주력 산업의 부진으로 우리의 경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녹색지 않은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고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혁신 성장을 선도하라는 국민 기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5G기술 상용화에 역점을 둘 것이라는 것도 언급했다.

유 장관은 “올해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바탕으로 5G를 기반에 둔 다양한 산업과 서비스가 창출되도록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데이터의 수집, 가공, 활용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데이터(D), 네트워크(N), 인공지능(A) 고도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연구·개발(R&D) 혁신도 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中企 생산성 확대 지원 강화”

#### 홍중학 중기부 장관

홍중학 중소기업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내년에는 중소기업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이를 위해 내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10명 이상 중소제조업의 50%인 3만 개 기업을 스마트공장조성으로 전환해 불량률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여주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또 “2022년까지 4차 산업혁명 전문 인력을 10만 명 양성하고 연구개발 자금 1조 원도 지원하겠다”며 “기술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에 저리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창업지원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홍 장관은 “4조 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만들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며 혁신 주체가 소통하며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공간을 설립하겠다”고 설명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연대보증을 폐지할 계획도 언급했다.








# 편견을 걷어내면 능력이 보입니다!

장애가 아닌 능력을 바라볼 때,  
함께 일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적응까지 체계적 지원



**직업능력개발**  
장애인이 능력을 키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지원**  
기업의 장애인고용 준비부터 관리까지 체계적 지원



**연구개발**  
장애인이고용의 미래를 여는 연구개발 사업 수행

전국대표번호

1588-1519

www.kead.or.kr

# 소상공인 “다 주면 망하고, 안 주면 범법자 될 판”

## 새해 '더블 쇼크' 현실화

기해년(己亥年)엔 지난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의 새 최저임금이 시행된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경제계에 최저임금 인상 공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업주의 추가 부담이 생기지 않는다는 현장의 혼란을 방치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약정휴일 수당과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고, 법정휴일 시간과 수당을 포함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분모인 월 기준 시간이 기존 소정근로시간 월 174시간에 법정 주휴시간 월 35시간을 더해 총 209시간이 된다. 여기에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을 곱하면, 한 달 최저 월급은 174만515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 금액인 157만3770원보다 17만1380원이 늘어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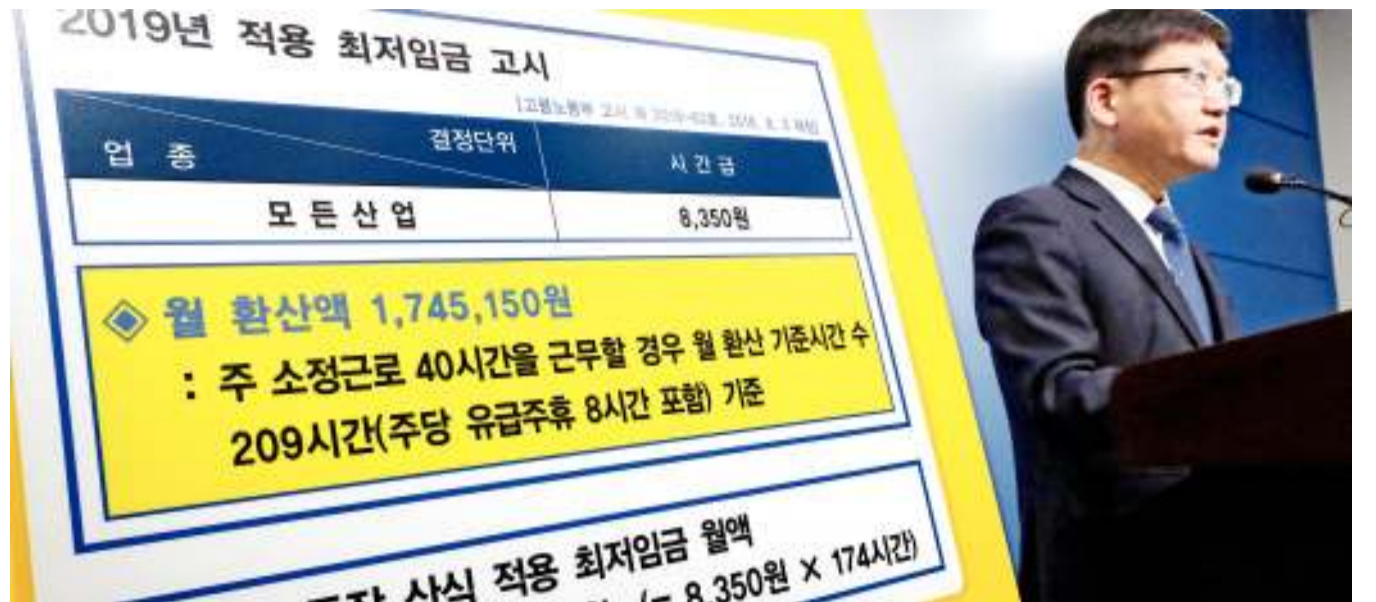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0년간 유지된 행정지침을 명문화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개정안 입법 예고에서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에 주휴시간을 합산함으로써 시간급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불필요한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10.9% 급등+ 주휴수당 오늘부터 인건비 '이중폭탄' 공포 주 15시간 '쪼개기 알바' 우려에도 정부 “업주, 추가부담 없다” 방치

하지만 최저임금 직격탄을 맞는 소상공인 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그동안은 법적 처벌이 강하지 않아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모두 법 위반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상승해 인건비 부담이 커진 데다 주휴수당까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미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지면서 일부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여러 명 쪼개 쓰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은 낮은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본급은 낮고 정기상여금 등의 비중은 높은 임금체계 때문이다. 현재 격월 또는 분기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도록 임금체계를 바꾸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다. 정부는 상여금 지급 주기 변경을 위해 사업장의 단체협약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 노조의 동의를 받는 데 필요한 임금체계 개편 자율 시정기간을 최장 6개월 주기로 했다. 문제는 단체협약 개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



3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임서정 차관이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는 “노조는 가만히 있어도 기본급이 오르게 돈이 상여금 지급주기를 변경하겠느냐”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추가 부담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현장의 혼란과 우려는 경영계에 떠넘기는 모습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주휴시간에 대해 “산업현장에서 관행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산정 방식이 정착돼 왔다”고 반박했고, 임금체계 개편에 관해선 “노사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은 없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휴수당 등의 문제로 실제 사업주들이 받을 압박은 더 커질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산업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이 2년 연속으로 크게 오르면서 이미 많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 재계, 최저임금 시행령 유감

- 경총
  - “경영 현실과 절박성 미반영...기업 경영재원·권리 심각한 타격”
  - “대법원 판결로 기업이 최저임금 시급을 20% 높게 산정 받을 수 있는 사법적 보장이 행정적으로 인정받지 못함”
  - “기업 현실·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 합리적·합법적 대안 조속히 마련되어야”
  - “정부는 구시대적 임금체계 전면 개편 작업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 한경연
  - “기업, 영세·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더욱 가중”
  - “생산성 상회하는 임금인상은 비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 기업 경쟁력 훼손”
  -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높아도 법을 위반, 추가 임금인상으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확대 우려”
  - “약정유급휴일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 고용노동부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

## “대법 판결 ‘상충’ 경영재원·권리 타격 결국 大·中企 임금격차만 확대될 것”

재계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통해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은 반영되지 못했고, 시행령 한 조문으로 기업의 경영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고 반발했다.

이어 “최근 잇달아 내려진 대법원 판결로 기업이 최저임금 시급을 20% 높게 산정 받을 수 있는 사법적 보장이 행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경총은 “기존 시행령과 사법부 판결에 기반해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응 능력을 정당하게 확보한 것으로 여겼으나, 이제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을 바로 고스란히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벌 대상이 되는 상태가 됐다”고 토로했다.

경총은 정부에 시행령 개정안 보완대책 마련과 더불어 임금체계 전면 개편을 주장했다. 경총은 “전반적으로 불안한 경제상황, 단기간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기업의 최저임금 지불능력 고갈, 경제심리 하락 등 당면한 기업 현실과 시행령 개정안고 있는 실제적·절차적 문제점까지 종합

적으로 고려해 국가적으로 동 사안에 대해 합리적·합법적인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법정유급휴일 시간을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시행령 개정안은 약정유급휴일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이어서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이런 결과 약정휴일이 있는 기업은 주로 유노조 대기업으로, 이들 기업의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도 법을 위반하게 되고,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추가적인 임금인상으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마지막 치과치료 언제였나요?

잇몸을 지키는 Daily Care, **검가드**

액상 타입으로 잇몸 사이사이 구석구석까지 강력하게!  
잇몸 질환 원인균 99.9% 제거

**검가드, 이런 분께 권합니다**

- ▶ 피곤할 때마다 잇몸이 쉽게 붓는다
- ▶ 양치질 등 작은 자극에도 잇몸에서 피가 난다
- ▶ 평소보다 입 냄새가 심하게 난다
- ▶ 이가 흔들리는 느낌이 든다



99.9% 감소

- 치은염, 치주염 예방 및 개선효과
- 치은지수(GI)개선 효과 정도(6주사용)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6주 임상]
- 잇몸질환 원인균 잔여발리스균 99.9% 살균효과(시험기관·노르젠(주))
- TPA 성분으로 잇몸 혈액순환 촉진 ■ 판테놀 성분으로 잇몸을 탄탄하게

# 잇몸가그린® 검가드

# 야 “민간인 사찰은 대통령 탄핵감”... 조국 “절대 없었다”

### 국회 운영위 여야 난타전

#### 야 “헌 정부는 ‘양두구육’ 정권” 여 “개인 일탈 행위에 놀아나”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3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난타전을 주고받았다. 야당은 “민간인 사찰은 탄핵감”이라고 총공세를 폈고, 출석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은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고 맞섰다.

여야는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부터 충돌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비롯한 민정수석실 비서관들이 운영위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해 50여 분간 공방전을 벌였다.

◇청와대·여당 “김태우 개인 비위... 사태 본질은 ‘삼인성호’”= 여야간 신경전은 질의 내내 이어졌다. 청와대와 여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을 ‘비리 혐의자’로 규정하고 김 수사관의 폭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김태우 사건의 본질은 3



임종석(왼쪽)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협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 커넥션인데, ‘비리 기업인’을 스폰서로 두고 정보 장사를 했던 ‘비리 공직자’가 쏟아내는 음해성 내용을 ‘비토 세력’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쏟아붓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의 사찰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김 전 수사관에 대해서는 “업무과

정에서 과거 경험과 폐습을 버리지 못하고 업무 범위를 넘나드는 일탈 행위를 저질렀다”고 했다.

조 수석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김 전 수사관의 비위 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 허위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뒤이어 정치 쟁점화됐다”고 했다. 조

수석은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뜻의 사자성어를 인용,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삼인성호(三人成虎)”라며 “개탄스럽다”고 했다.

◇한국당 “김태우는 공익제보자... 이 정권은 양두구육 정권”= 한국당은 김 전 수사관을 ‘공익제보자’로 규정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김 수사

관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보이는데 그는 엄연한 공익제보자”라며 “대검 검찰 결과를 보면 수사 의뢰도 못하고 징계 밖에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사실은 개고기를 판다는 뜻의 ‘양두구육(羊頭狗肉)’ 고사를 인용해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민간인 사찰, 공무원 휴대폰 압수, 블랙리스트 작성을 하고도 1인 일탈이라고 한다”며 “정의, 도덕성을 앞세운 그런 위선에 대해 저는 양두구육의 정권이라고 생각한다”고 공격했다.

◇문 대통령 “민정수석 운영위 출석은 정치 공세”=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에 대해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운영위가 열리고 있던 비슷한 시간 청와대 본관에서 마련된 민주당 지도부 초청 오찬 자리에서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안전이나 민생과 관련한 법안들이 또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국회 운영위에 출석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것은 2006년 이후 12년 만이다. 유충현 기자 lamuziq@

## 대통령 지지율 45.9% ‘최저’... 文 “국민 눈높이 못 맞추면 靑에 있을수 없어”

### 경제 부진에 김태우 사태 악재로... “새해 경제활력 높여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인 45.9% 기록하며 2018년을 마감했다. 특히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게 나온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나타나 집권 3년차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안게 됐다.

31일 여론조사 전문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28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11명을 상대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해보다 1.2%포인트(p) 떨어진 45.9%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3.6%p 올라 취임 후 최고치인 49.7%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김태우 사태’와 여당 의원의 ‘공방 갑질’ 등 각종 악재가 겹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한 해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1월 첫 주 71.6%로 출발해 4·27 판문점 남북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상회담 직후 77.4%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가 10월 들어 경제정책 실패 논란과 공직기강 해이

논란 등으로 11월 처음으로 40%대로 하락한 뒤 내림세를 이어왔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새해 정부가 해야 할 과제에 대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까지 진도를 내야 한다”며 “사람 중심 경제가 옳은 방향이고 국민의 삶을 좋아지게 했다고,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고용과 분배 등 민생의 어려움을 개선해야 한다”며 “혁신적 포용국가는 국정 목표가 산업현장과 국

민의 삶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역량을 모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거진 청와대 기강해이와 관련해 “더 엄격한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 처신은 물론 언행조차 조심해야 한다. 스스로를 거울에 비춰보듯 또 살얼음판을 걷듯 자중자해야 한다”며 “그것을 요구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없다면 청와대에 있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힘있게 이룬 개혁은 당연시되고 더 많은 개혁의 요구가 불만과 비판으로 이어지는 개혁의 역설이 있을 수 있다”며 “그 요구에 응답해 또박또박 할 일을 해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www.childfund.or.kr

놀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꿈을 찾아 이루게 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놀이의 가치를  
다시 볼 때입니다

70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어린이재단

후원문의 1588-1940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놀이 환경개선과 놀 권리 증진 사업을 통해 놀이의 가치를 다시 보게 만듭니다.

# 저물가에도 못 웃는 가게... 식탁물가 강세 여전

## 통계청 '12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1.3% 상승에 그쳐  
신선식품지수는 6.6% 상승  
석유류 25개월 만에 하락 전환

소비자물가 추이 (단위: %, 전년 동월 대비) ※ 출처: 통계청



국제유가 하락과 유류세 인하 효과로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1.3% 상승에 그쳤지만, 서민 체감도가 큰 식탁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하락하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1.3% 상승했다. 연간 물가 상승률도 예상치를 밑도는 1.5%에 그쳤다. 전반적으로 석유류 하락으로 종합물가 상승 폭은 축소됐지만, 채소·과일을 비롯한 농축수산물 물가는 강세를 이어갔다.

먼저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3% 상승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한 물가 상승률로, 일반적으로 근원물가로 표현된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와 생활물가지수도 각각 1.1%, 1.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6% 상승했다. 신선어개가 1.3%, 신선채소는 5.5%, 신선과일은 11.1% 각각 올랐다. 김윤성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농축수산물 쌀 등 곡물 생산량 저조로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채소는 김장철을 맞아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로는 5.6% 하락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5.5%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지출 목적별로는 식탁물가에 해당하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와 음식 및 숙박이 각각 4.2%, 3.1% 오르며 고물가 행진을 이어갔다.

석유류가 2.8% 내리며 종합물가지수를 0.13%포인트(P) 끌어내렸다. 석유류 물가가 하락으로 전환된 건 2016년 12월(1.1% ↑) 이후 25개월 만이다. 전기·수도·가스는 1.4% 올랐으나, 전월보단 상승 폭이 둔화했다. 반면 상품 중 농산물은 10.7%, 개인서비스 중 외식은 3.1% 올랐다.

주요 등락 품목을 보면 농축수산물 중에선 쌀(23.8%), 토마토(30.2%), 낙지(33.4%), 배(29.5%) 등이 전년 동월과 비교해 큰 폭으로 올랐다. 개인서비스로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큰 공동주택관리비와 가사도우미료가 각각 3.1%, 11.4% 상승했다. 구내식당식사비도 3.3% 올랐다. 그나마 휘발유가 국제유가 하락 및 유류세 인하 효과로 5.8% 하락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3% 상승했다. 사진은 3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채소 코너 모습. 연합뉴스

## 한미 FTA 개정안 오늘 발효... 명암은

독소조항 ISDS 남소 방지·美 '무역구제 조치' 투명성 확보  
車 부문 양보로 대미 무역흑자 줄어들 듯... '관세폭탄' 우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문이 1일 정식 발효된다.

이번 한-미 FTA 개정으로 우리나라는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남소 방지와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 투명성을 확보했다.

그러나 자동차 부문을 미국에 양보한 데 따른 대미 무역흑자 감소 확대 우려와 함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폭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1일 발효된 개정 협정문에는 양국이 ISDS와 관련해 중복 소송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담겼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로 우리에겐 독소조항으로 꼽혀왔다.

반덤핑·상계관세 등 미국의 무역구제 조

치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한 것도 우리에겐 긍정적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미국의 최대 FTA 개정 요구 사항인 픽업트럭 관세 철폐 기간 연장과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미국산 자동차 수입 물량 5만 대 확대 등 자동차 부문을 양보하면서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 폭이 줄어들 공산이 커졌다.

대미 무역 흑자액은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151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3년(205억 달러)부터 2016년(232억 달러)까지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다가 2017년 178억 달러, 2018년(1~11월) 127억 달러로 급감했다.

미국의 관세폭탄 우려도 여전하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 자동차 업계의 연간 손실이 2조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 새해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오른다

임금의 50%... 최대 120만원  
'아빠육아휴직' 250만원으로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의 월 급여 상한액이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월 상한액도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출산·육아기 근로자와 사업주의 지원제도가 강화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의 급여가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나머지 9개월에 대한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 수준으로 지급됐다. 1일부터는 통상임금의 50%

(월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기준으로 지급된다.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1~3개월)는 지난해 9월부터 통상임금의 40%에서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로 늘려 시행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지원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월 상한액을 올해보다 50만 원 늘린 250만 원으로 올린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주로 아빠)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다. 상한액을 꼭 채워 받는 근로자가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적용까지 받을 경우 첫 3개월은 매월 250만 원씩을, 이후 9개월은 매월 120만 원씩을 받게 된다.

또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1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미 출산휴가 중이더라도, 1일 이후의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는 올해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월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 기간에 2주의 인수인계 기간만을 포함했으며, 지원금은 중소기업 월 60만 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 원이었다. 올해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에 포함하는 인수인계 기간을 2개월로 확대하고, 인수인계 기간에 한해 중소기업 지원금을 월 120만 원으로 인상한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한미약품  
\*광고심의필: 2018-1455-004400

99세까지 건강하게-

엄마 아빠,  
나인나인으로  
건강 꼭 챙기세요!

소프트랙 금메달리스트  
김아랑

\*28가지  
국내 최다 성분 한국인 맞춤 종합비타민  
\*2018년 8월 기준

# 나인나인<sup>®</sup>

정 하루 한알

(효능·효과) • 육체피로 • 눈 건조감 완화 • 병중/병후의 비타민 보급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철부턴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효능·효과 및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 설명서를 참고해 주세요.

# “채권 줄이고, 가치주·신흥시장 주목해야”

## WSJ '2019년 투자전략'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커 리츠 등 대체투자 해 볼 만

새해 글로벌 금융시장이 심한 변동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Brexit)에 이르기까지 2018년 시장을 짓눌렀던 요인들이 새해에도 파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3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새해 생존을 위해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한다며 주식과 채권 등에서의 전문가 전략을 소개했다.

새해 뉴욕증시 전망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모건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미국 주식 수석 투자전략가는 S&P 500지수의 2019년 말 종가를 2750으로 예상했다. 최근 이 지수가 2500선을 밀도는 점을 감안하면 새해 뉴욕증시가 소폭 상승에 그칠 것으로 본 셈이다.

반면 크레디트스위스의 데이비드 골럽 투자전략가는 투자자들이 기업 실적 개선에 기대 더 많이 주식을 살 것이라며 S&P 지수가 3350에 이를 수 있다고 낙관했다.

새해 시장이 평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는 모두가 일치했다고 WSJ는 강조했다. 한스 크리스티안 윈클러 클라라피어드 바이저리네트워크 금융자문은 “지난 3~5년간 투자자들은 단지 시장에 있기만 하면 됐다”며 “이제 투자자들은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주식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대폭 조정하기보다는 투자 초점을 일부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웨스트리저자산전략의 로버트 첸니 자문은 지난 수년간 주가가 고공행진을 펼쳤던 IT 관련주 비중을 줄이고 다양한 가치주에 투자할 것을 고객들에게 권고했다.

트레이시 맥밀런 웰스파고인베스트먼

트인스티튜트 글로벌 자산 배분 대표는 “해외나 신흥시장 등으로 주식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말했다.

채권시장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전문가가 거의 없다. 트레이디션자산운용의 마이클 치코네 투자자문은 “지금 채권 투자에 적합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연준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 속도 둔화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과 고용시장 경색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져 금리 인상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채권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하락해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 달 초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190억 달러(약 21조 원) 규모의 30년 만기 국채 수요는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새해에는 주식과 채권 이외 다른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맥밀런 대표는 “주식이나 채권과는 확연히 다른 수익원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면 뛰어난 리스크 관리 전략이 될 수 있다”며 “상품 등에 2% 자산을 배분하고 최대 15%를 대체투자 채우면 좋을 것”이라고 추천했다.

배준호 기자 baeh94@

### 글로벌 금융시장 2019년 투자전략

자산	주요 내용
주식	- 기술주 비중은 줄이고 다양한 가치주에 투자할 것 - 해외 신흥시장 등으로 포트폴리오 확대
채권	- 가격 하락 예상돼 매력 떨어질 전망 - 포트폴리오서 비중 줄일 것
대체 투자	- 리츠, 인터벌펀드 등 대체투자 비중 확대 필요 - 주식, 채권과는 확연히 다른 투자수익원 모색할 것
현금	- MMF 등 단기적이며 안전한 투자처에 현금 넣어둘 것 - 연준 금리인상 기조에서 3% 금리 확보할 수도 있어

※출처: 월스트리트저널(WSJ)



英 스코틀랜드의 새해맞이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30일(현지시간) 열린 새해맞이 축제 ‘호그머네이 행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참여해 밤 거리가 대낮처럼 환하다. 호그머네이는 매년 말부터 새해 1월 1일까지 잉글랜드 북부와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전통 축제로 사람들이 거리를 행진하거나 위스키를 마시면서 해가 바뀌는 순간을 축하하는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에든버러/AP뉴시스

## 日 ‘관광객 러시’... 화장품 수출 날개

일본 화장품 업체들이 방일 관광객 급증에 힘입어 수출 호황을 누리고 있다.

31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화장품 수출은 2018년 1~11월에 전년 동기 대비 44% 급증한 4828억 엔(약 4조8632억 원)을 기록했다.

12월은 신년 선물 수요 등으로 수출이

성장하는 경향이 있고 현재 일본 내 주요 화장품 업체 공장 가동률이 높은 수준이어서 2018년 연간 수출액이 5200억 엔 안팎으로, 사상 첫 5000억 엔 돌파가 유력하다. 이는 6년 연속 사상 최고치도 경신하게 되는 것이다.

신문은 방일 외국인 관광객들이 귀국

후에도 일본 화장품을 찾으면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수출이 활발해졌다고 분석했다.

화장품 수출 대상 지역을 살펴보면 중국이 34.9%로 비중이 가장 컸다. 한국은 10.3%로 홍콩(25.9%)에 이어 3위였다. 대만(7.3%)과 싱가포르(7.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화장품 전체 수출의 90%가 아시아로 향했다. 배준호 기자 baeh94@

## 美 떨게 한 中 기술굴기 첨단분야 80%서 앞서

중국이 첨단기술 분야 30개 중 23개(80%)에서 논문 실적과 영향력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통상 갈등까지 촉발된 상황에서 양국의 패권 전쟁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31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학술정보 업체인 네덜란드 엘스비어와 함께 첨단기술 부문 30개 연구 테마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발표된 논문 수와 주목도에서 중국이 23개 분야의 1위로 나타났다. 미국이 선두를 차지한 분야는 7개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조희수 등을 바탕으로 논문의 주목도를 점수화해 연구 주제별로 점수를 집계했다. 조사 대상 논문 수는 1720만 건으로 중국이 290만 건, 미국 390만 건, 일본 77만 건 순이었다.

주목도가 높은 첨단기술 10위 내에서는 전지 관련 테마가 5개로 가장 많았다. 휴대전화부터 전기차(EV)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쓰이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차세대 태양전지 재료인 ‘페로브스카이트’와 나트륨 이온 전지 등이 가장 주목받은 부문 중 하나다. 이어 의료·바이오 기술에서 유전자를 자유롭게 잘라 붙이는 등 동식물의 품종 개량을 연구하는 ‘게놈 편집’이나 면역요법 등이 포함됐다.

중국은 주목도 1~4위에 오른 연구 주제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광촉매’와 ‘핵산을 대상으로 하는 암 치료’ 등의 부문에서는 중국 논문이 전 세계에서 발표된 논문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의 과학 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 덕분에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다운 기자 gamja@

# h point

## 고객에게 주는 세상에서 가장 큰 혜택

H.Point는 하나의 ID로  
현대백화점그룹 전 계열사의  
온라인 서비스에 로그인 가능하고  
온/오프라인 어디서든  
포인트 적립과 다양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멤버십입니다.

현대백화점 | 현대홈쇼핑 | 현대아울렛 | 현대백화점 Duty Free | 한성 | 현대G&F | 현대리바트 | 현대HCN | 현대렌탈케어 | 현대그린푸드 | 현대드림투어 | 더현대닷컴 | 현대Hmall | 더한섬닷컴 | H패션몰 | 현대위크몰 | 현대어린이책미술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은 영원할 수 없기에

그래서 누군가는 반드시 새로운 물을 찾아야 하기에

두산은 지구의 97%인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영원히 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술

자금은 물이 부족한 몇몇 나라를 위한 기술이지만

미래엔 지구와 사람을 지켜줄 생명의 기술입니다

# 두산은 지금 내일을 준비합니다



두산은 시장점유율 세계 1위의  
해수담수화 플랜트 기술로  
1,700만 명이 사용 가능한  
500만 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해수담수화 플랜트 시장점유율 세계 1위  
(2011~2015 Thermal 부분, GWI 발표기준)

신년사로 본 '기해년 금융정책·감독 키워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현 금감원장의 기해년 정책·감독 키워드는 '신뢰와 혁신'이다. 우선 금융위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 혁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를 확보해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소비자 보호 중점 혁신 성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보증 확대 등 지원체계 구체화  
핀테크 기업 성장 환경 조성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은 31일 신년사를 내고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금융 △금융산업의 혁신성장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 및 금융 포용성 강화 △공정한 금융 질서 구축 △확고한 금융 안정을 5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긴급 유동성 지원, 보증 확대 등 기존 정책을



은 프레임이 필요하다”며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마음껏 선보일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유연한 규제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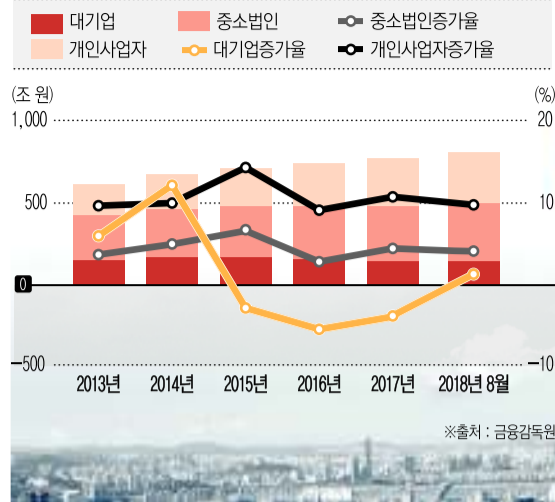
그는 정책의 중심에 소비자를 두고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십분 활용할 것”이라며 “일자리 확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며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마음껏 선보일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유연한 규제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공정한 금융 질서를 위해선 “금융그립통합감독법과 지배구조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금융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불법 차명 거래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재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장주도의 구조조정 시장을 마련하는 데도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은행기업대출 규모 및 증가율



하나금융경영 '2019 금융산업' 전망

## “은행권, 中企 대출 역량 집중할 것”

강화된 가계대출·정부 기조 여파  
벤처·제조업 대상 영업 증가 전망

은행권이 올해 핵심 영업전략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내세울 전망이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와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중소기업 대출에 사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 분석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31일 '2019년 금융산업 전망 발표'에서 내년 벤처·혁신기업과 중소기업 위주로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신용위험 상승 우려로 증가 폭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중소기업 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줄어 전체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중소기업 정책지원 확대로 중소기업 대출규모 증가세는 확대된다”면서도 “개인사업자 대출의 40% 이상 차지하는 부동산임대업 관련 규제로 전체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축소될 것”이라고 했다.

은행권이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린 이유는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된 탓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고(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70%로 정해 관리하고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에 적용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도입하고 관리도 강화했다.

생산적 금융 등 정부의 친중소기업 정책 영향도 컸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10조 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를 출범한다.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보증에도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문제는 그만큼 은행의 리스크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장기준속 한계기업은 부동산 보유 비중이 높아 총차입금 규모가 줄어도 담보대출은 증가한다”며 “담보 위주 여신 평가 관행을 개선하고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임대업 대출 규제 강화로 중소기업 대출 포트폴리오를 새로 구성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가계대출의 경우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주택자금 수요가 계속돼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줄어들지만 ‘풍선효과’로 신용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세하 기자 shys0536@

# “불공정거래 차단 신뢰 향상”

윤석현 금감원장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시행  
레그테크 등 감독 수단 확장

윤석현(사진) 금감원장은 소비자 보호 강화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며 “금융중개 과실도 가계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가계소득 증가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검사 부담을 줄여주고, 취약점이 많은 금융회사는

검사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의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검사 부활에 대해 “약간의 우려와 의문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원장은 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AI)을 약관심사나 불법금융행위 차단에 활용하는 등 레그테크(규제+기술)와 셉테크(감독+기술)로 감독 수단을 확장하겠다”고 했다.

윤 원장은 특히 “금감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가위험 관리자’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하는 것”이라며 “금융위기가 언제라도 그 모습을 달리해 찾아올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잠재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불공정거래와 회계 부정 등 금융 질서 도전 행위를 엄정 대처해 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겠다”고 했다.

박석현 기자 sunhyun@  
이세하 기자 shys05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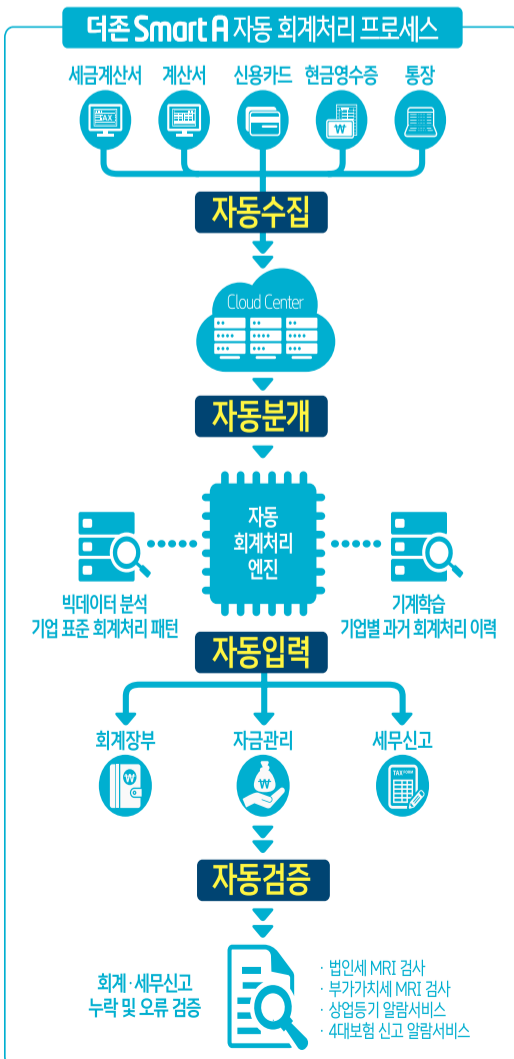
www.douzone.com

#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증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더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 구성

- 재무회계관리, 건설회계관리, 인사급여관리, 일용노동관리
- 구매관리, 재고관리, 판매(영업)관리, 생산원가관리
- 외주관리, 세무조정, 전자세금계산서, 금융CMS



국가공인 AT(회계실무/세무실무)자격시험  
더존 프로그램 사용자라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더존 홈페이지 자격시험 사이트에서 핵심강좌 무료 수강  
지금 검색창에서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 ASK KB증권

## 물어보세요! KB증권이 또 어떤 길을 개척할지

복합점포 확대, 비대면 계좌개설로 증권의 새로운 길을 열고  
베트남 진출로 해외 투자의 성공적 길을 열어가는 KB증권!

국민의 투자에 힘이 되도록  
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KB증권은  
그 어떤 투자의 물음에도 답하겠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8-04211호(2018년 10월 22일~2019년 10월 17일)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 청취 후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KB 증권

# 정부, 복직 개시한 쌍용차에 자금 지원 논의

**‘사회적 대타협’ 부담 경감 차원  
해고자 71명 10년 만에 일터로  
남은 40% 상반기 단계적 복직  
신차 생산·근로시간 단축 해결**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가운데 일부가 10년 만에 복직했다. 쌍용차는 31일 노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물론 △신차 생산 대응 △자연 감소 인원 충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해고자를 포함해 총 105명을 복직시킨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복직 대상 해고자 가운데 60%인 71명과 신규 채용 인원 34명 등이 포함됐다. 나머지 해고자는 올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복직한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조합원들 모두 복직한 뒤 회사로 돌아가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날 복직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쌍용차 노동조합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차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 등 4자는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쌍용차 노사가 상생발전 방안을 만들자는 데 뜻을 함께하고, 그 일환으로



10년 만에 복직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31일 오전 축하행사에서 받은 케네이션을 들고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으로 출근하고 있다.

해고자 전원 복직에 합의한 바 있다.

앞서 쌍용차 사태는 2009년 1월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시작했다. 전체 임직원의 약 35%인 2646명에 대한 구조조정이 결정되자 5월 총파업이 시작됐다. 이른바 ‘공장 점거 농성’도 이때 시작했다. 77일 동안 이어진 점거 농성은 같은 해 8월 경찰의 강제 진압으로 종료됐다. 그 사이 노조 지부장을 포함해 64명이 구속됐고 1700여

명이 명예퇴직 등으로 회사를 떠났다. 공장에 남아 파업을 벌였던 970여 명은 결국 무급휴직(454명) 또는 명예퇴직을 택해야 했다. 이 가운데 160여 명이 끝까지 선택을 거부했고 결국 ‘해고자’가 됐다.

2010년 11월 인도 마힌드라가 쌍용차를 인수하면서 회사는 회생에 나섰다. 인수 4개월 만에 법원도 ‘기업회생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쌍용차는 2013년 경영상태가

호전되자 무급 휴직자(455명) 전원 복직을 결정했다. 이때에도 해고자는 복직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해고자들은 ‘해고 무효소송’을 내 2014년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재판 결과가 ‘파기환송’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마침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졌고, 지난해 9월 노노사정위원회가 남은 해고자 전원 복직에 대한 복직을 결정했다.

노노사정 대표들은 이번 복직 결정과 함께 ‘쌍용차상생발전위원회’를 통해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이다. 대규모 복직이 개별 회사 차원으로만 역부족인 만큼 정부도 회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논의 중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조기 복직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상생발전위원회의 논의 사항인 만큼 회사 측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면서도 “올해부터 연이어 신차가 출시되고 향후 지속적인 신차 개발이 필요한 만큼 국책은행을 통한 정부 차원의 장기대출이나 회사채 발행 지원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 자율주행차 유럽 특허 출원 기업 순위

(단위: 건, 2011~2017년 기준)

순위	기업명	건수	순위	기업명	건수
1	삼성	624	6	도요타	338
2	인텔	590	7	노키아	280
3	퀄컴	361	8	에릭슨	264
4	LG	348	9	마이크로소프트	259
5	보쉬	343	10	콘티넨탈	259

※출처: 유럽특허청

## 유럽 자율주행 특허 6년 새 330% 급증 삼성 1위, LG 4위

유럽에서 출원된 자율주행 특허 수가 지난 6년간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가장 많은 자율주행차 특허를 출원한 기업은 삼성으로 조사됐다.

31일 유럽특허청(EPO)이 최근 발간한 ‘특허와 자율주행차’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유럽 내 출원된 자율주행 관련 특허 수는 총 3998건으로 2011년(922건) 대비 33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다른 기술 관련 특허 출원 건수가 16% 증가하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무려 20배를 웃도는 성장세다.

2011~2017년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기업은 삼성전자로, 삼성은 총 624건의 특허를 올렸다. 2위는 인텔(590건)이 차지했으며 퀄컴(361건), LG(348건), 보쉬(34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보다 전자 및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의 특허 출원이 훨씬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위권 기업 중 자동차 관련 업체는 보쉬(5위)와 도요타(6위), 콘티넨탈(공동 9위) 등 3곳에 불과했다. 10위권 밖에는 볼보(13위), 아우디(17위), 혼다(20위), 닛산(25위) 등이 이름을 올렸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특허분석 회사 페이먼트 리절트(Patent Result)의 미국 내 자율주행 기술 특허 경쟁력 조사 결과를 보면 1위인 구글 계열 웨이모를 제외하고 도요타, GM, 포드, 닛산 등 완성차 업체들이 5위권에 포진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라스베이거스 무대로...삼성·LG 임원 총출동

**‘CES 2019’ 다음 주 개막  
반도체·휴대폰·가전 수장 참석  
프레스 콘퍼런스 등 ‘동분서주’  
박일평 LG 사장 기조연설 맡아**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19’에 삼성전자와 LG 전자 임원들이 총출동한다.

3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1월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19에는 핵심 3대 사업부를 이끄는

대표이사 3인이 모두 참석한다. 최근 정기 임원인사에서 승진한 디바이스솔루션(DS) 사업부문 대표이사인 김기남 부회장과 TV·백색가전 등을 맡은 소비자가전(CE) 사업부문의 김현석 사장, 스마트폰 사업 등을 담당하는 IT모바일(IM) 사업부문의 고동진 사장이 CES에 참석해 청사진을 그린다.

특히, 가전 부문을 맡고 있는 김현석 사장은 CES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김 사장은 프레스 콘퍼런스에서 전 세계 미디어를 대상으로 올해 자사의 주력 신제품과 기술력을 직접 소개한다. 또 기

기간담회도 따로 진행한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 열린 독일 IFA(국제가전전시회)에 이어 올해 CES에서도 박일평 최고기술책임자(CTO) 사장의 기조연설로 CES 문을 연다. 박 사장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an Even Better Life)’을 주제로 인공지능 진화가 미래의 삶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박 사장은 IFA에서도 조성진 부회장과 공동으로 기조연설에 나선 바 있다. 당시 LG전자 클로이 로봇과 직접 대화를 주고받는 등 이색적인 연설 구성과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주목받았다.

조성진 LG전자 부회장과 흡어플라이언스 & 에어솔루션(H&A) 사업본부장 송대현 사장, 휴먼터레인먼트(HE) 및 모바일커뮤니케이션(MC) 사업본부장 권봉석 사장은 라스베이거스로 날아간다.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부회장과 함께 CES 행사장을 찾을 예정이다. 조성진 부회장과 권봉석 사장, 한상범 부회장 등은 각각 기간담회를 열어 사업계획 등을 밝힌다. LG전자 미국법인 데이비드 반더럴 마케팅총괄도 전 세계 미디어를 대상으로 올해 자사의 주력 신제품과 기술력을 직접 소개하는 프레스 콘퍼런스 일정을 소화한다.

권태성 기자 tskwon@



A RECORD OF 36 days, 2 hours, 37 minutes - LIMITED EDITION

HONG KONG - LONDON THE TEA ROUTE

#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수출·투자·고용 악화 우려

올해 우리 경제 전망이 어둡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대 중반대가 예상된다. 마지막 보루인 수출마저 증가세가 급속히 둔화하고 있다. 여기에 미중 무역갈등과 미국의 금리인상과 경제둔화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6~2.7%로 내다봤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산업연구원(KIET)은 2.6%, 민간연구기관은 현대경제연구원과 LG연구원은 2.5%, 한국은행은 2.7%로 각각 예상했다. 2017년 3.1%, 2018년 2.7%보다 낮다.

정부와 연구기관들은 올해 세계교역 둔화와 미·중 통상마찰, 보호무역주의 등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현재 휴전(1~3월) 중인 미·중 통상 분쟁이 재개되면 수출에 비상이 걸린다. 중국과 미국은 우리나라 수출 대상 1, 2위 국가라는 점에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이 중국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그 영향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액도 282억60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



“美·中 통상분쟁 재개하면 중국 수출 283억 달러 줄어” 고용 불안·자금 유출 여전 정부 정책 효과도 미지수

러 가지 대내외 여건으로 올해 수출 증가율은 전년(6.1%) 대비 반 토막(3.1%) 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지난해 설비 투자도 감소했고, 올해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1%가량 늘 것으로 전망되지만 추동력이 약하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2.8% 감소에 이어 올해도 2.0%의 감소가 겹쳐져 건설 경기 한파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의 ‘고용 쇼크’ 여파가 올해도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 수를 15만 명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책·민간연구기관의 전망치는 10만~13만 명이라는 점에서 고용 불안이 여전한 전망이다. 금리도 부담이다. 미 연준은 지난해 12월 정책금리를 연 2.25~2.50%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이로써 한국과의 금리는 0.75%p 차로 벌어져 자금의 유

출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는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올해 예산의 61%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현대차 신사옥 글로벌 비즈니스센터(3조7000억 원) 등 민간의 조기 투자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먹힐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 반도체 AI·차량용 수요 늘지만 가격 약세

### 중 반독점 규제·美 관세에 촉각

반도체는 2019년 수요 둔화로 소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지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 금리인상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글로벌 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민 연구원은 “메모리 반도체 호황 지속과 자율주행차 등으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 확대 등 성장 요인이 있지만, 세계경제의 위축 및 차이나리스크에 따른 반도체 수요 둔화로 성장세는 정체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낸드플래시는 종전의 공격적인 설비 증설 영향으로 2019~2021년에 걸쳐 공급 과잉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중국의 삼성전자·하이닉스·마이크론에 대한 반독점 규제 적용 여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조사 가능

성 등도 부정적 요인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수입을 제한하거나 최대 25%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D램의 경우 최근 현물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9년에는 신규 스마트폰 출시, 고사양 모바일 게임 출시 본격화, 프리미엄 노트북 수요 강세,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 개선이 예상된다.

반도체 수요는 큰 틀에서 반도체 패러다임은 기존 스마트폰, 노트북 등 소비자 IT 제품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IT 인프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공급 측면에서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고점 논란에도 수요처 다변화 및 신규 시장의 등장으로 호황은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메모리업체들의 미세공정 전환의 어려움, 공급업체의 수익성 위주 전략으로 공급량 확대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자동차 글로벌 저성장 시대 진입

### 국내 시장도 2년 만에 역성장

세계 자동차 시장은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폭이지만 상승세를 거듭했던 국내 자동차도 2년 만에 역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글로벌경영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자동차 시장은 중국 자동차 시장의 둔화에 따라 9244만 대 수준에 머물렀다. 전년 대비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역시 미국과 유럽, 중국 등 3대 시장의 부진으로 0.1%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차 시장이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셈이다.

2019년은 인도와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국 시장이 전년 대비 7~8% 성장세를 보이겠지만 미국과 유럽, 중국 등 3대 시장의 정체라는 부정적 요인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관측된다. 그만큼 이들 3대 시장의 규모가 크다.

이보성 소장은 한국자동차기자협회 경기

전망 세미나를 통해 “중국 자동차 판매량이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것”이라며 “중국은 지속 성장하는 시장이 아니라 경기나 외부 충격으로 감소할 수 있는 시장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 중국 자동차 시장이 경기 둔화와 무역갈등 지속에 따라 올해보다 0.2%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금리 인상 지속과 자동차업체들이 판매량보다 수익성을 중시하는 전략을 택하면서 1.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유럽도 0.8% 성장에서 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 0.2% 감소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시장도 2년 만에 역성장이 점쳐진다. 지난해에 이어 개소세 인자가 연장됐지만 내수경기가 부진하고 하반기에는 올해 판매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나타나면서 1.0% 감소한 179만 대 판매에 그칠 것으로 이 소장은 내다봤다.

김준형 기자 junior@

## 철강 안정 속 성장 둔화

### 美 한국산 수입규제 완화 기대

올해 글로벌 철강 시장은 안정기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최대 철강 시장인 중국의 철강수요가 줄면서 전 세계 수요 증가세도 둔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박성봉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 글로벌 철강 시장에 대해 “2019년 중국 철강 수요가 정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 세계 수요 증가세도 둔화할 것”이라며 “다만 올해에도 글로벌 철강 수요 자체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의 경우 올해에도 자국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따라 연말부터 인프라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발맞춰 3분기부터 중국 지방 정부의 특별채권 발행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다.

박 연구원은 “그러나 4분기부터 예상되는 (철강) 수출 둔화는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철강의 가격 상승은 제한적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현재 중국의 철강 가격은 최근 평균가격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철강 가격 또한 2010년 이후 최고치에 가까운 상태다.

갑작스러운 대규모 공급에 의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발표된 중국 철강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대규모 설비 증설 가능성도 작다.

한편, 국내 철강업체는 미국의 한국산 철강재 수입규제 완화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철강 수입 규제 영향으로 철강 가격이 급등하고, 물량 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내 품질 미달 혹은 물량 부족의 경우 한국산 철강 수입 쿼터의 조정을 승인할 바 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 석유화학 내수 부진·低유가 겹쳐 ‘이중고’

### 세계 경기 둔화로 수출 타격

올해 석유화학 산업은 내수 부진, 중국 성장 둔화, 재고 손실 확대 등으로 인해 후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석유화학 산업의 생산은 내수 부진과 재고 손실 확대 등이 맞물리면서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미중 통상 분쟁 등으로 증가세 둔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수는 전방 수요산업이 경기 부진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내수 부진, 재고손실 확대 등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올해 생산은 소폭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 등 글로벌 수입 수요의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올해에는 국제유가가 지난해 대비 점진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이는 제품가격 하락으로 전가되면서 재고 손실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다만 국제 유가의 하향 안정화가 중장기적으로

계속되면 납사 등 원료비 하락은 원가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출은 미국과 중국의 통상갈등 심화에 따른 세계 교역 위축, 세계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증가세가 전년 대비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석유화학 산업은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다만 인도, 아세안(ASEAN) 지역의 산업 경기 호조로 인해 수입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라 둔화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내수의 경우 자동차, 섬유, 디스플레이 등 전방 수요산업의 경기부진이 이어지면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아울러 올해에는 고부가가치화 전략 강화, 보호무역주의 추세 확산으로 인한 주요국들의 수입규제 지속, 북미 지역 중심의 셰일가스 기반 석유화학 증설 확대로 인한 공급과잉 우려가 업계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 디스플레이 LCD 공급과잉, OLED로 재편

### 수요 2% 늘 때 공급 9% 늘어

디스플레이는 2019년에도 작년처럼 공급과잉 현상이 벌어질 전망이다.

최영산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019년 시장 상황은 2018년과 마찬가지로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LCD에 대한 수요 증가율은 2.2%인 반면에 공급증가율은 9.4%이다. 올해에는 공급과잉 흐름이 더욱 심화한다”고 말했다.

공급 과잉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중화권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10.5세대 LCD 양산이 있다.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 CSOT는 1분기부터 10.5세대 공장을 가동하고, 대만 디스플레이 업체 폭스콘이 인수한 일본 샤프는 4분기에 가동할 예정이다.

최 연구원은 “문제는 BOE를 비롯한 중화권 주요 패널 업체들의 증설 랠리는 이제 시작됐다”며 “BOE를 필두로 CSOT와 샤프는 올해 대형 LCD 증설을 사실상 확정했다. 중국의 HKC 또한 10.5세대로의 진입

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나마 TV 출하량을 성장시켰던 올림픽과 월드컵 특수해 효과가 없는 올해는 LCD 패널 가격이 압축기에 진입할 전망이다.

다만 LCD와 달리 대형 OLED는 수요증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최 연구원은 “OLED TV 시장 성장이 2022년까지 연평균 41% 수준으로 지속된다”며 “2022년에는 OLED TV가 약 1000만 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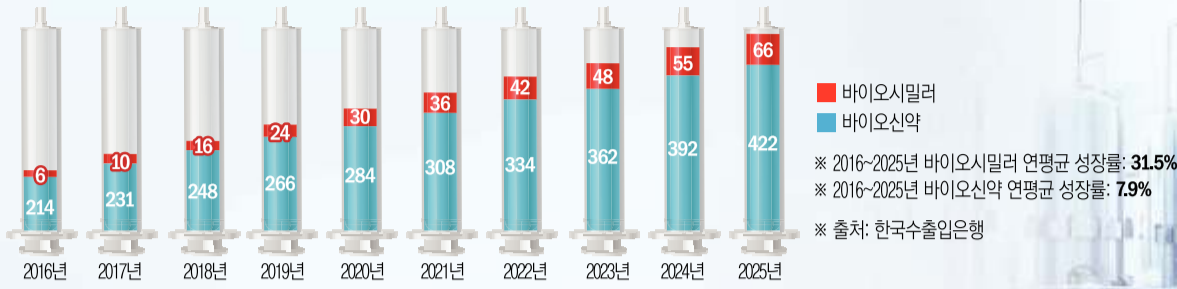
시장환경을 고려해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OLED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파주공장 10.5세대 라인을 OLED로 직행하고, 중국 8세대 OLED 공장을 내년 3분기 준공하고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발광 소재로 유기물뿐만 아니라 무기물(퀀텀닷)도 사용하는 퀀텀닷 OLED 관련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 ‘황금알’ 바이오시밀러 레드오션? ...글로벌 도전은 계속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10억 달러)



## 국산 바이오시밀러 현황

회사명	제품명	성분명	오리지널 의약품	주요 적응증	현황
셀트리온	램시마(인플렉트라)	인플릭시맙	레미케이드	자가면역질환	미국·유럽 출시 완료
셀트리온	트룩시마	리툽시맙	맙테라/리툽산	비호지킨림프종(혈액암)	유럽 출시·FDA 판매 허가 획득
셀트리온	허쥬마	트라스투주맙	허셉틴	유방암	유럽 출시·FDA 판매 허가 획득
삼성바이오에피스	베네팔리	에타너셉트	엔브렐	류머티즘 관절염 등	유럽 출시 완료
삼성바이오에피스	플러사비(렌플렉시스)	인플릭시맙	레미케이드	자가면역질환	미국·유럽 출시 완료
삼성바이오에피스	인랄디	아달리우맙	휴미라	류머티즘 관절염 등	유럽 출시 완료
온트루젠트	온트루젠트	트라스투주맙	허셉틴	유방암	유럽 출시·FDA 판매 허가 신청



국산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셀트리온은 미국 시장에 바이오시밀러 3종을 모두 진입시킨다는 속보를 풀었고,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세계 매출 1위 바이오의약품의 바이오시밀러를 유럽 시장에 출시했다. 그러나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한국 기업을 위협하는 존재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다. 일각에서는 국산 바이오시밀러의 기세가 올해 꺾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연평균 31.5%씩 성장해 2021년 360억 달러(40조 원), 2025년 663억 달러(75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각국 의료부문 예산 삭감과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 특허 만료가 겹치면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보다 개발 기간이 짧고, 실패 확률이 낮다. 개발비용도 10분의 1 수준이라 기존

개발기간 짧고 비용도 10분의 1 자금력 풍부한 대기업까지 진출

각국 건보재정 악화·특허약 만료 年 30% 성장...2025년 75兆 전망

가격 출혈경쟁에 시장 위축 우려 유럽 처방확대 등 긍정적 분위기

제약회사는 물론 자금력을 보유한 대기업들에도 주목받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글로벌 제약사 애브비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인랄디’를 지난해 10월 유럽 시장에 출시했다. 휴미라는 글로벌 매출 20조 원에 이르는 초대형 바이오의약품으로, 유럽 매출은 약 5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휴미라의 유럽 특허가 만료되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비롯해 산도스, 암젠, 마일란 4개 업체가 일제히 유럽 시장에 바이오시밀러를 내놨다. 애브비는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휴미라 가격을 10%에서 최대 80%까지 할인하는 강수로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베링거인겔하임의 ‘실테조’가 유럽 시장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이어 화이자의 ‘파이조클라드’도 허가 신청을 철회했다. 이는 얼핏 삼성바이오에피스에 긍정적 소식처럼 보이지만, 유럽 휴미라 시장의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그동안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성공을 판가름하는 잣대는 시장 진출 시기였다. 가장 먼저 시장에 진입하는 ‘퍼스트무버’ 지위가 시장점유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셀트리온의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는 퍼스트무버로 유럽 시장에 발매된 후 약 3년 동안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다. 경쟁자가 전무한 상황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파격적인 가격 인하로 초기 시장 진입에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퍼스트무버 효과는 바이오시밀러 경쟁이 심화할수록 힘을 잃는다. 여기에 오리지널 의약품이 가격 인하로 대응하면 바이오시밀러의 가격은 더욱 내려가고, 시장점유율도 위축된다.

미국 의약품전문지 피어스파마(Fierce Pharma)에 따르면, 미국 시장에서 레미케이드 약가는 전년 대비 10.7% 하락했다. 이로 인해 ‘인플렉트라’(램시마의 미국명)와 삼성바이오에피스 ‘렌플렉시스’의 약가도 분기마다 3~7%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대목이다.

하지만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도 감지해야 한다. 유럽에서는 바이오시밀러로 처방을 확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영

국 NHS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 처방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2200억 원 정도 절감했다. 기존에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투약한 환자에게 바이오시밀러를 2차 치료제로 처방했지만, 이제는 재정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차 치료제로 조기 처방을 권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품(FDA)은 지난해 7월 바이오시밀러 액션 플랜을 발표하고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승인과정을 효율화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말 ‘트룩시마’, ‘허쥬마’의 FDA 판매 허가를 획득하면서 바이오시밀러 3종으로 미국 시장 입지를 다질 예정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온트루젠트’는 FDA 허가심사가 연장되며 출시일정이 지연됐으나, 올해 하반기 중 허가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혜은 기자 eu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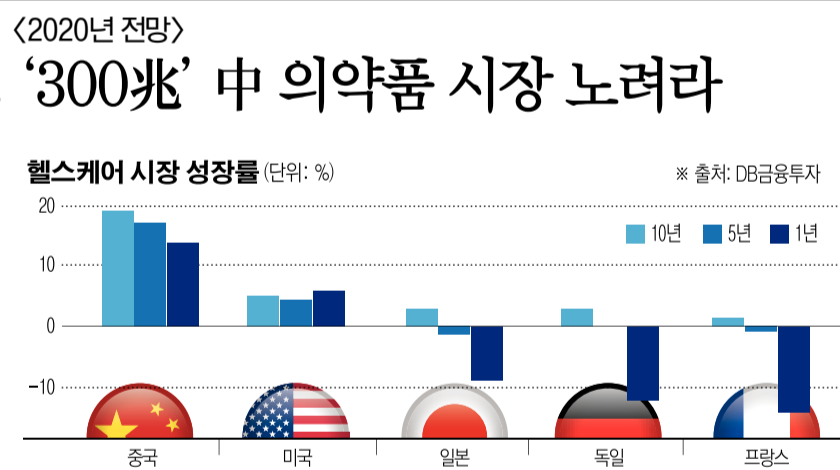
## 국내 제약사, ‘300兆’ 中 의약품 시장 노려라

65세 인구만 1억5000만 명 中 정부 신약심사 간소화 추진 치열한 美·유럽 시장의 대안 K바이오 합작법인 진출 늘어

중국이 국내 제약사들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의약품 시장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14억 인구를 거느린 중국 시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업계 따르면 중국 의약품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13.2%에 달하고, 2020년 30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은 이미 2013년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의 11%를 차지하며 세계 2위의 의약품 시장으로 올라섰다. 그러나 GDP 대비 헬스케어 지출액 비중은 미국은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다.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2017년 기준 1억 5000만 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10%를 돌파했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전환하면서 시장 규모는 갈수록 팽창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최근 정부 주도적으로 의약품 심사평가제도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혁신신약 심사평가 및 비준 가속화 △해외 임상 활용 △의약품 심사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글로벌 제약사들을 향해 본격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중국 협업 사례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하이난성 공공 계약
휴온스	보툴리눔독소 중국 공급 및 독점 판매권 계약
셀트리온	‘세대 바이오시밀러’ 제품 개발 관련 조인트 벤처 설립 합의
GC녹십자	GCC-4401C(항응혈제) 기술이전
바이넥스	항체 바이오시밀러 기술이전계약 체결

적으로 문을 연 셈이다.

일찌감치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한미약품, GC녹십자, 대웅제약, 휴온스, 일양약품 등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한미약품과 일양약품, 대웅제약은 연간 10% 이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GC녹십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액을 유지하고 있다.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해 중국 시장을 직접 공략할 수도 있지만, 현지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합작법인 설립이 더 매력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한 진출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약가 인하 규제 등으로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합작법인 설립 또는 판권계약을 통한 시장 진출 전략이 적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독소 ‘뉴로녹스’

의 중국 진출을 위해 중국 내 필러 점유율 2위 기업 블루미지바이오텍과 합작법인 메디블룸치아나를 설립했다. 뉴로녹스는 중국 임상 3상을 마치고 지난해 2월 판매 허가를 신청, 올해 상반기 중 정식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중국 하이난성에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의 수출을 완료했고 2019년 허가를 예상하고 있다. 하이난성은 의료특구로 지정돼 수입의약품 신속 허가가 가능하므로 일부 지역이지만 인보사를 중국에 빠르게 출시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판 1년 만에 시술 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한국의 사례를 비춰보면, 하이난성 허가 후 임상 건수가 누적되면서 중국 전체로 확장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유혜은 기자 euna@

## 올해 국산 글로벌 신약 쏟아진다

한미약품 등 4종 美 허가 기대 임상3상·혁신치료제 지정 순풍

2019년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미래를 진단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주요 기업들이 핵심 파이프라인의 연구·개발(R&D) 성과를 내놓으면서 오랜 세월의 결실을 기다리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과 한미약품, SK바이오팜 등 굵직한 기업들의 신약이 글로벌 시장에 속속 진출한다.

먼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독소 ‘나보타’는 전 세계 보툴리눔 독소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미국과 유럽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품(FDA) 판매 허가 시점은 2월로 예상되며, 2분기 내로 유럽의약품청(EMA) 허가도 전망된다. 보툴리눔 독소 시장은 전체 4조 원, 미국 2조 원 규모로, 미국 시장에서 나보타의 가치는 560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한미약품의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는 4분기 FDA 허가가 기대된다. 롤론티스는 한미약품의 핵심 플랫폼 기술 ‘랩스캐버리’가 적용된 첫 번째 바이오신약이다.

지난해 4분기 FDA에 판매허가신청서(NDA)를 제출한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는 4분기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국내 기업이 독자 개발한 혁신 신약을 기술 수출하지 않고 FDA에 NDA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판매 허가를 받으면 2020년 상반기 내 미국 시

### 올해 신약 해외 진출 및 R&D 일정

회사	물질명	주요 이벤트
대웅제약	나보타	1분기 미 FDA 허가 예상
한미약품	롤론티스	4분기 미 FDA 허가 예상
	포지오터닙	1분기 미 혁신치료제 지정 예상
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4분기 미 FDA 허가 예상
	솔리암페롤	연초 미 FDA 허가 예상
SK케미칼	페루구공백신	1분기 글로벌 임상 1상 진입 예상
한올바이오파마	안구건조증	1분기 미 임상 3상 진입
바이로메드	VM202	3분기 미 임상 3상 결과
신라젠	펙사백	4분기 간암 글로벌 임상 3상 완료
메디톡스	뉴로녹스	상반기 중국 출시 예상

\* 출처: 각사, SK증권

판이 가능하다. SK바이오팜은 미국 제약사 재즈와 공동 개발한 수면장애 신약 ‘솔리암페롤’의 FDA 승인도 앞두고 있다.

신라젠은 면역항암제 ‘펙사백’의 간암 적응증에 대한 임상 3상 중간결과를 1분기 발표한다. 4분기에는 글로벌 임상 3상을 완료할 예정이다. 펙사백은 면역관문억제제와 병용투여에서 독성이나 부작용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치료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 ‘레이저티닙’은 1분기 미국 임상 3상에 돌입한다. 레이저티닙은 지난해 11월 다국적 제약사 안센에 1조4000억 원의 초대형 기술 수출에 성공한 신약이다. 서미와 유한타증권 연구원은 “임상 3상 단계에 진입하면 최종 승인까지 평균 성공 확률이 50%로 신약 가치가 상승한다”며 “2019년 업황의 핵심은 글로벌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 ‘협력관계 격상’ 아세안·인도와 더 큰 번영 이룬다

## 11월 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개최

“올해 신남방정책은 11월 말, 12월 초에 열리는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특별 정상회담의 한·미·중 특별정상회담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한·아세안 교류를 계속 활성화해 꽃피우는 것이 핵심이다.”

김현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최근 가진 이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하는 모습도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 초청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라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 속에서 잘 조율해서 특별회원 자격

은 등 신남방정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아세안 국가 4개국과 인도를 포함해서 5개국을 순방했는데 나머지 6개국은 올 아세안특별정상회담의 전에 3개국씩 묶어 순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올해 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을 주요 화두로 삼는 데는 아세안에서 한국경제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 인도와의 협력관계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도와 아세안 시장은 국내총생산(GDP) 5조 달러로 2030년엔 세계 5대 경제권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억 인구를 가진 거대 소비시장이다. 특히 아세안은 평균

## 아세안·인도 20억 인구 거대시장... 2030년 세계 5대 경제권 성장 전략적 동반자 넘어 ‘사람·상생번영·평화’ 중심 미래 공동체 구축 인프라 부족해 기업 진출 걸림돌... “맞춤형 핀포인트 전략 필요”

으로 초대해 한반도 세션을 하나 더 넣게 된다면 최고”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위도도 대통령은 이번 특별정상회담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자는 파격 제안을 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의 참석차 한국에 온다면 첫 다자 외교무대 등장으로 획기적인 한반도 평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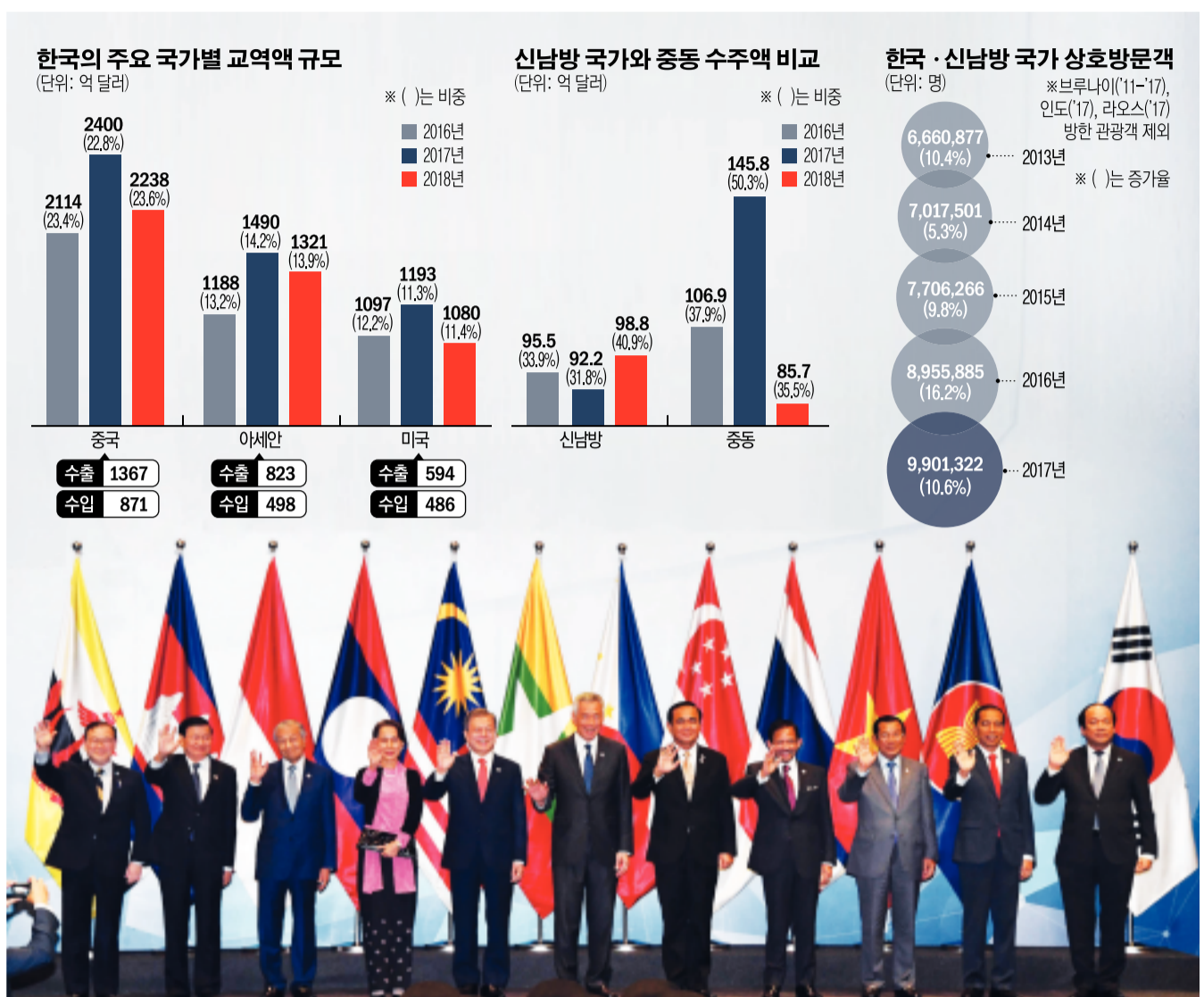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부는 한류 붐 확산을 위한 전략을 마련 중이다. 아세안 각국에서 케이팝 스타 예선전을 거쳐 특별정상회담 때 한국에서 결승전을 펼침으로써 단순한 외교의 장이 아닌 축제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정상회담 전까지 문 대통령은 미방문 아세안 국가에 대한 정상순방에도 나서

연령이 28세로 미래 성장 잠재력이 커 블루선 시장으로 평가받는다.

문제는 아세안 지역이 기회의 땅임은 분명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는 데 걸림돌이 많다. 불안정한 에너지 수급과 값비싼 전력·산업용수, 높은 물류비용뿐만 아니라 낮은 노동생산성, 아세안 국가 간 큰 경제 격차, 미흡한 행정·법률 체계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특정 국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각 국가에 대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하나씩 풀어주는 핀포인트 전략으로 접근할 계획”이라며 “예를 들어 ‘미얀마 우정의 다리 수주전’에는 GS건설의 건설 수주에 핀포인트를 두고, KB국민은행이 베트남 진출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면 핀포인트로 해결해 주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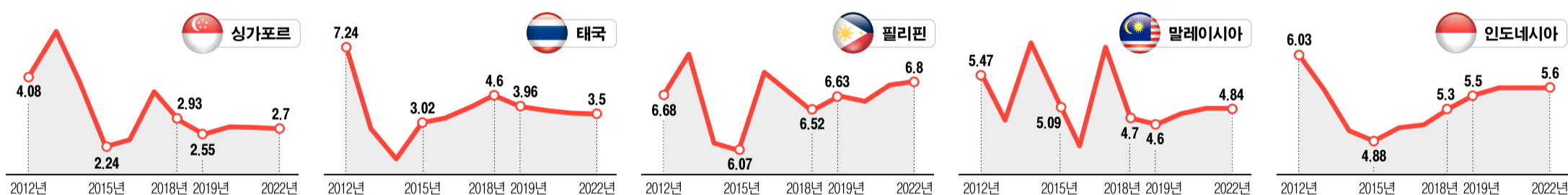
문재인(왼쪽 다섯번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4일 싱가포르 선택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담'에 참석해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스

그는 “신남방 국가에 한국기업이 8000여 개가 진출해 있고 더 많은 기업이 진출할 예정이지만 제도라든가 인프라가 한국만큼 높은 수준이 아니어서 애로사항이 많다”며 “이런 것을 신남방정책특위나 정부부처가 백업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도나 아세안에 진출한 우리 중견·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금융지원을 위해 내년 12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며 이 정권이 끝나는 2020년까지 1조 원 정도 지원할 예정”이라며

“또 수요가 큰 인프라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산하에 인프라공사를 만들어 수주 전부터 최종 수주 때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장관이나 관계부처 장관들은 수주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그쪽 장관을 만나 협조 요청을 해 신남방 국가에서 기업들이 쉽게 영업이나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순방 때마다 경제외교를 펼

치며 그 나라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들의 숙원사업이나 애로사항을 회담에서 직접 요청해 풀어나가는 것도 이러한 핀포인트 전략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들 국가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넘어 아세안과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라는 3P 중심의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신동민 기자 lawsdm@

동남아 주요국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단위: %, 2018~2022년은 추정치)



# 젊은 세대 많고 소비·투자 활발... ‘포스트 차이나’ 떠올라

## ‘성장가도’ 달리는 동남아

2018년은 세계 경제를 견인해야 할 미국과 중국 G2의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으면서 세계 경제에 깊은 생체기를 낸 한 해였다. 이 여파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경제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 하지만 동남아시아는 ‘포스트 차이나’로서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는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전 세계 기업과 투자자들로부터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동남아 주요 5개국의 지난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4.5%(연율 환산)로 집계됐다. 이들 국가의 평균 성장률은 2017년 3분기 5.5% 이후 줄곧 5%대를 유지하다 5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필리핀, 아웃소싱 사업 호조  
말레이시아, 전자부품업 개선  
인도네시아, 해양 인프라 장점  
베트남, 풍부한 노동력 뒷받침  
평균 경제성장률 줄곧 5%대  
G2 무역전쟁·美 금리가 변수

4%대로 떨어졌다.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는 동남아 5개국의 GDP가 지난해 5.1%, 올해 5.0%에서 2019년 4.8%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미·중 간 무역 긴장과 미국의 긴축 기조가 이어지면서 아시아에서 자본 유출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 정도의

성장세를 유지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다지 비관적인 건 아니라는 평가다.

동남아는 젊은 인구가 많고,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소비 확대와 투자 확대가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출도 상승세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 성장률은 2016년 6.9%에서 2017년은 6.6%, 2018년은 6.9%로 예상되고 있다. 약 1억 명의 인구를 거느린 필리핀은 중산층 확대로 소비가 활발해지고 있다. 영어를 무기로 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업무일괄수탁) 사업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해양국가인 인도네시아도 낙관적이다. 민간 소비와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 2016년은 5.0%의 성장률을 보였고, 2017년 5.1%에 이어 2018년에는 5.3%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말레이시아도 세계적인 스마트폰 수요

확대를 받던 삼아 전자부품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단 말레이시아는 원유 순수출국으로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2015~2016년은 유가 하락에 따른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았다가 유가가 50달러대로 회복하면서 성장세도 탄력을 받았으나 최근 유가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불확실성이 다소 존재한다.

젊은 인구가 많은 베트남의 성장률도 6%대로 높은 편이다. 풍부한 노동력을 배경으로 높은 경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우리 군의 베트남전 파병으로 양국 간에 한때 어두운 역사가 있었지만 축구 국가대표 감독 박항서의 활약으로 한국에 대해 한층 호의적으로 바뀌는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15일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이 10년 만에 아세안축구연맹

(AFF) 스즈키컵에서 우승했을 당시, 경기장 안팎에서 금성회기와 함께 태극기가 휘날리기도 했다.

더욱 주목할 건 동남아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유층의 저변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 싱가포르 DBS은행이 소시에티제네랄의 아시아 투자은행 부문을, 2016년에는 OCBC가 바클레이스의 부유층 사업을 각각 인수했는데, 이는 부유층 확대가 아시아 금융기관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다만 동남아 경제에도 리스크는 있다. 미·중 간 무역전쟁과 미국장기금리 상승이다. 양국의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동남아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고, 미국 장기금리 역시 계속 오르면 아시아 통화 약세는 불가피하다.

배수경 기자 sue6870@

# “2200~2400 ‘박스피’ … 투자 활성화 위해 규제 풀어야”

〈박스권+코스피〉

##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 자본시장 정책 평가

\*증권사 주요 리서치센터 16곳 대상, 중복응답 허용, 익명 진행

### 자본시장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경제정책은

\*중복응답

① 벤처·중소기업 적극적 지원	4
② 규제완화 통한 대기업 투자 활성화	11
③ 노동시장 유연화(일자리 창출 등)	0
④ 정부의 공격적 재정집행	4
⑤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통화정책	1
⑥ 기타	0

### 코스피 반등을 위한 자본시장 정책 방향

\*중복응답

① 4차산업혁명 등 신성장산업 육성	12
② M&A 활성화 및 지배구조 리스크 해소	2
③ 연기금 자본시장 유인책 강화	4
④ 공매도 규제	1
⑤ 기타	1

### 금융투자 자산비중 높이는 데 필요한 정책은

\*중복응답

① 4차산업혁명 등 신성장산업 육성	12
② M&A 활성화 및 지배구조 리스크 해소	2
③ 연기금 자본시장 유인책 강화	4
④ 공매도 규제	1
⑤ 기타	1

### 코스피지수 전망치

\*상단기준

① 1800포인트 미만	0
② 1800포인트 이상~2000포인트 미만	0
③ 2000포인트 이상~2200포인트 미만	0
④ 2200포인트 이상~2400포인트 미만	10
⑤ 2400포인트 이상	5
⑥ 미응답	1



## 리서치센터 16곳 설문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로 접어든 자본 시장은 기대감과 불안감이 혼조돼 있다. 지난해 코스피는 마·중 무역전쟁 심화와 글로벌 금리인상 기조에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전문가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올해 증시도 ‘박스피(박스권+코스피)’ 행보로 예상된다.

이투데이가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 16곳을 대상으로 12월 19~21일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코스피지수 상단으로 ‘2200포인트 이상~2400포인트 미만’이 미응답을 제외한 전체 응답(15표) 중 10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는 2017년 말 종가(2467.49)보다 낮고 2016년 말 종가(2026.46)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다만 상단값으로 ‘2400포인트 이상’을 점친 곳도 5표에 달해 박스권 탈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수 상단으로 ‘2200포인트 미만’을 꼽은 곳은 없었다.

코스피지수 밴드 상단은 증시 방향성을 점치기 위한 중요 좌표다. 전망치가 낮을 수록 시장의 접프를 이끌 모멘텀도 적다는

## ‘2400포인트 이상’ 긍정적 전망도 33%… ‘2000 미만’은 없어 증시 반등 이끌 정책 ‘4차 산업혁명 신성장 사업 육성’ 꼽아

어기다.

가령 2월 말 미국의 중국 추가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돼 ‘휴전’ 상태인 마·중 무역전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3월 말 블랙 시트 현실화 가능성과 지속되고 있는 미국 금리인상 통화정책 기조도 우려 요인이다. 중국의 모건스탠리캐피탈지수(MSCI) 신흥국(EM)지수 편입이 5월 또는 8월 가시화될 수 있어 국내 주식시장에 공급 약재로 작용할 수 있다. MSCI EM 지수 내 한국주식 투자비중이 줄어들 경우 이를 추종하는 외국계 대규모 패시브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

수많은 악재 속에서도 코스피 반등을 이끌 자본시장 정책(중복응답 허용)은 ‘4차 산업 등 신성장사업 육성 정책’으로, 전체 응답(20표) 중 과반수 이상인 12표를 얻었다. 그 뒤를 ‘연기금 자본시장 유인책 강화’(4표), ‘인수합병(M&A) 활성화 및

지배구조 리스크 해소’(2표), ‘공매도 규제’(1표), 기타(1표) 순이었다.

4차 산업은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가상현실(AR), 증강현실(VR), 머신러닝, 인공지능, 3D 프린터, 드론, 로봇, 스마트그리드 등 다양한 업종 등을 두루 포함한 용어다. 이 같은 IT 기반 기술들을 세상에 적용해 산업 간 초연결성을 구현한다.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 먹거리라는 평가다.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코스피 원동력이었던 글로벌 반도체 사이클이 하락 국면이란 점에서 새 퀀텀점프 유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코스피지수 반등을 넘어 자본시장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중복응답 허용)으로는 ‘규제 완화를 통한 대기업 투자 활성화’가 전체 응답(20표) 중 11표를 획득해 1순위 과제로 꼽혔다.

이어 ‘벤처·중소기업 적극 지원’과 ‘정부의 공격적 재정 집행’이 각각 4표씩 얻어 공동 2위였다. 글로벌 경기 약세와 맞물려 국내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설비 투자가 줄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부 역시 ‘2019년 경제정책’에서 소비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성장 전략의 방향을 바꾸겠다고 투자 활성화를 강조했다. 성장세 악화 속 제조업 업황 불확실성, 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 창출력이 높은 투자가 부진해지고 기업·시장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진단에서도.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작년 2분기 국내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최저 10.8%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퇴보했다는 평가도 함께 내렸다. 올해 상반기 전망치 역시 마이너스(-)0.6%로 전년에 비해 후퇴 속도는 줄어들지만 여전히 하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 자산보다 금융투자 자산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정책(중복응답 허용)으로는 ‘주식거래

세제혜택’과 ‘불필요한 규제 철폐’가 각각 9표씩 얻어 전체 응답(20표)의 절반을 나눠 가졌다. ‘개인투자자 유인정책’도 1표를 얻었다. 실제 연말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을 팔아치우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증시의 추가 상승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자본시장의 숙원 과제 중 가장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은 부분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였다. 전체(16표) 중 절반인 8표를 얻었다. 그 뒤로 ‘상장사 부실감사 관련 회계법인 처벌 강화’(3표), ‘세제 혜택과 투자 지원 등 해외투자 유인 마련’(2표) 등이 뒤따랐다.

반대로 가장 후퇴한 정책으로는 ‘세제 혜택과 투자 지원 등 해외투자 유인 마련’(6표)이 전체 응답(16표) 중 최다 득표를 했다. 이외에도 ‘개인투자자에 대한 과도한 시장 진입 규제 완화’와 기타 의견이 각각 3표씩 얻어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시장 규제 완화’(2표)도 있었다. 차명영 기자 blooming@

## 文정부 자본시장 정책 평가

# 잘한 정책 ‘시장교란 엄벌’… 미흡한 점 ‘해외투자’ 유인 감소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8개월간 가장 잘한 자본시장 정책은 주가조작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로 조사됐다. 반대로 해외 투자 유인 마련 노력은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투데이 설문조사에서 자본시장의 숙원 과제 중 가장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은 부분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행위 엄벌’로 전체 응답(16표) 중 8표를 얻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불공정거래 행위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시장교란,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을 말한다. 이 중 상장사의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증권매매에 미리 활용해 부당이익을 얻는 불공정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증권 범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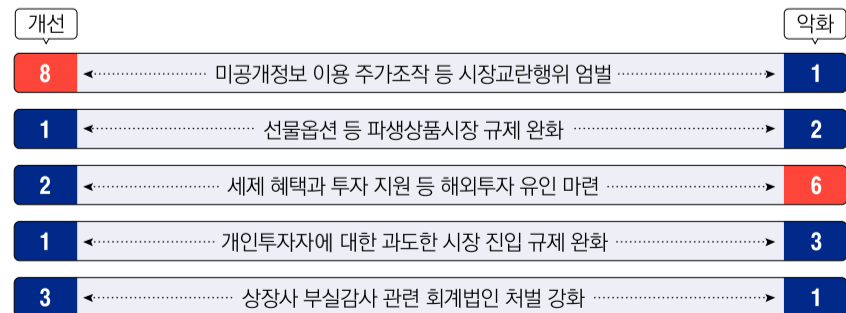
### “해외증권사 불공정행위 철폐 자본시장 신뢰도 높였다” 평가

###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 일몰 글로벌증시 침체에 투자 주춤

작년 금융당국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자행한 골드만삭스에 75억 원의 징벌적 성격의 과태료 제재를 내렸다. 해외 증권사에 강력한 철폐를 내리면서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락오 사태’도 증권사 배당시스템 전반을 손보는 계기로 이어지면서 공매도 조작 논란과 함께 국내 증시에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 증권업계 숙원 과제 중 개선된 부분과 악화된 부분 설문 결과

\*전체 응답 16표 중 득표 수



반대로 현 정부에서 가장 후퇴한 자본 시장 정책은 ‘세제 혜택과 투자 지원 등을 통한 해외투자 유인 마련’(6표)으로 전체 16표 중 최다 득표를 얻었다. 이는 2017년 말 비과세 해외주식펀드 제도가 일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0년간 절세 혜택이 부여되는 금융투자상품이 더 이

상 생겨나지 않으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해외투자 유인도 감소했다. 작년 글로벌 증시 침체에 따른 펀드 평가손실도 한몫했다.

개인이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경우 세금 부담은 더 크다. 기본적인 주가 등락에 따른 위험이나 환 리스크 외에도 배

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나 주식매매 시 높은 양도소득세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배당 관련 적용세율은 14% 또는 누진세율이며, 주식 매매로 얻은 차익에는 20% 세율이 적용된다.

황세은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일부 상장사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계속 반복해 왔는데,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미래 잠재적 범죄들에 대해 억제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한 사모펀드 관계자는 “국내 금융소비자는 옛날 해외투자 비과세 혜택을 주던 펀드들이 사라지면서 투자에 제약받고 있다”며 “다만 해외주식 직접매매는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과세 정책이 쉽게 개선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차명영 기자 blooming@

# 어쩔 수 없는 '조정장세' ... 시장 관심은 '신도시·토지'

'기해년'의 해가 밝았다. 부동산 시장 과열도 벌써 해묵은 얘기가 됐다. 작년은 물이 들어와 노를 저은 이들의 한 해였다. 노를 갖지 못했던 이들은 물때를 놓칠까 봐 애를 태웠다. 정부가 무주택자, 실거주자를 위한 정책을 쏟아내면서 2018년의 막을 내렸다.

복(福)의 상징인 돼지해, 부동산 시장은 2019년을 어떻게 맞이할까. 이투데이는 시장 전문가 8인에게 주택, 토지, 상가에 대한 한 해 전망을



물었다. 올해 노를 저어야 할 곳은 과연 어디일까.

세부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작년과 같은 과열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대다수가 조정 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하반기에 나왔던 부동산 대책 영향과 투자심리 위축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 이유에서다.

서지희 기자 jhsseo@이신철 기자 camus16@

## 서울 아파트값 0~5% 상승...GTX·신규물량 주목

(4명)

“호재보다 악재가 더 많다”  
8명 중 2명은 -5~0% 전망

**주택** 이투데이가 8명의 시장 전문가에게 내년 전국 기준 아파트 시장 가격 변동률을 물어본 결과 하락부터 상승까지 답변이 다양했다. 선택항목은 ①-10~-5% ②-5~0% ③0%(보합) ④0~5% ⑤5~10% ⑥기타로 제시했다.

가장 많은 답변이 나온 수치는 0%(보합)로 3명이 택했다. '-5~0%', '0~5%'은 각각 2명이 예상했다. '-10~-5%' 범위에서 가격이 조정될 것이라 전망도 나왔다.

가장 보수적으로 변동률을 내다본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지

하철 개통, 도로 개설, 대형마트 입점 등 국지적 개별 호재가 있지만 금리인상 우려, 대출규제 강화, 세금규제 강화, 입주물량 급증이란 악재가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8명 가운데 절반인 4명이 '0~5%'를 택했지만, 2명은 '-5~0%'로 예상했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5~10%'로 전망해 눈길을 끌었다.

이상우 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시장은 강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다만 상승률은 2018년 대비 둔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매수가 이어질 지역에 대한 의견은 다양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재 둔화는 불가피하다”며 “신규 아파트 및 중소형 저가 아파트에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경자 한국금융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에도 서울 아파트 시장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GTX 수혜지역인 강남(삼성·대치)을 매수세 유입 전망지역으로 꼽았다. 이상우 애널리스트는 서남(금관구), 동북(노원·도봉·강북) 등을 매수세 지속 지역으로 예상했다. 이상혁 선임연구원은 “GTX 파급효과가 부동산 시장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청량리, 망우, 용산, 연신내, 양재 등에 매수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 보상금 풀리고 교통망 개선...올해 부동산 이슈는 '땅'

“3기 신도시·광역교통망 호재”  
5인 '강보합' 2인 '강세' 전망

**토지** 전문가들은 2019년 토지 시장이 달아오를 것이라는 데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만 선행하는 주택 시장에 따라 토지시장도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한 가운데 전문가 5인이 강보합세(0~5%)를 점쳤고, 2인은 강세(5~10%)를 전망했다.

2019년 토지 시장이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 예측에는 올해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22조 원 규모의 토지보상금과 3기 신도시·수도권 광역교통망 등 신규 개발 호재 등이 요인으로 꼽힌다.

고상철 랜드샵 대표는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경우 인접 지역의 토지 투자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며 “김포, 파주, 일산 등에서는 토지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

전문가들이 지목한 토지시장 호재

고상철	공동주택지구·산업단지 재개발 토지보상
박원갑	토지보상금
양지영	3기 신도시 개발
이경자	강한 주택규제의 반사효과
이동현	3기 신도시 개발, 대북관계 화해무드
이상우	토지보상금+신규 교통망
이상혁	수도권-주택공급 계획 및 광역교통망 개선 가시화

가 토지로 지속 유입될 것”이라며 “큰손들의 움직임은 원래부터 토지에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상혁 선임연구원은 “토지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용인 데다 투자금액대라는 진입장벽이 있어 수요 유입에 한계가 있다”며 “더욱이 과거보다 그린벨트 해제나 신규 택지지구 개발 등 이슈가 부족한 상황이라 투자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이 뽑은 토지 시장 추천 지역은 남북 관계 개선과 교통망 개선 등으로 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곳들이다.

고상철 대표는 “파주지역의 경우 현재 북한과의 철도경협이 이뤄지면 사회적 관심을 두는 지역”이라며 “더군다나 GTX-A 노선의 착공 기대감으로 주택투자자들의 관심이 파주지역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이며 지하철 3호선의 연장 또한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상가, 침체 겪겠지만...“알짜는 여전히 반짝일 것”

경기침체·금리인상은 먹구름  
주택규제 풍선효과 수요 기대

**상가** 상가 시장은 경기 침체와 금리인상, 주택 규제의 풍선효과 등 요인이 존재한 가운데 위축을 내다보는 전망이 우세했다. 고상철 대표와 이상혁 연구원은 강세(0~5%)로 전망했으며, 전망에 응답한 나머지 5명 중 4명은 약보합세(-5~0%), 1명은 보합을 예상했다. 상가시장 침체가 예상된 배경으로는 대체로 먹구름 낀 국내 경기와 인상 중인 금리를 꼽았다.

이동현 센터장은 “2019년 상가시장은 금리 인상 분위기에 다소 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기에 경기불황 여파에 따른 공실 증가가 이어지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대출규제 여파가 지속된다면 상가 시장의 약세는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규제

점철된 주택시장의 풍선효과로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에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상혁 연구원은 “현재 정책 기조의 골자는 다주택자를 억제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고 수익형부동산으로 갈아타는 현상이 뚜렷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고상철 대표는 “시중 유동성이 여전히 넘치는 터라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가나 코퍼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시중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는 신도시나 업무지구의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또 교통망 등 인프라가 확충되는 지역이 신규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문가들의 흔재된 관측 속에 투자 유망 지역에 대한 의견도 다양했다. 서울 강남 지역으로는 이경자 한국금융투자 연구원이 신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서울 삼성동

에 들어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인근을 눈여겨볼 곳으로 꼽았다.

이상혁 연구원은 서울 송파의 지하철 9호선 연장선(개통) 호재가 있는 백제고분로, 석촌호수 일대와 구로의 차랑기지 이전(예정), 구로고가차도 철거(공사 중) 등 상권 환경 개선 지역을 유망지로 제시했다. 이어서 서울 중구 미교동·다동·서소문을 서울시 최대 과제 중 하나인 도심재생사업 가시화에 따라 주목할 지역으로 꼽았다.

한편 전문가들은 올해 상가 임대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중국과의 사드 문제 해결, 최저임금 인상,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금리인상 등을 꼽았다.

이동현 센터장은 “상가는 어떤 부동산보다도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소상공인 금융지원, 임대료 인상 등 인위적으로 임대 수요를 늘리려는 정책보다는 소비 유도, 해외 관광객 유치 등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 부동산 전문가 8인 주요 설문 답변 (가나다순)

① 부동산 시장 전망은? ② 유망 투자처는? 😊 호재 😞 악재

■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 ■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 ■ 올해 부동산 시장 키워드



고상철 랜드샵 대표

① 조정기에서 침체기로 진입. 주택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의해 토지·상가 시장으로 유입 예상.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처를 찾을 가능성도 있음. ② 3기 신도시 등 공급정책으로 보상금이 급증할 것으로 보임. 토지 수요 증가 예상.

**주택** 😊 철도-산업단지 개발예정지 😞 대출 규제, 세금제도 강화  
**토지** 😊 철도개발 😞 경기불황에 따른 일자리 축소  
**상가** 😊 주택규제 강화 😞 금리인상

-5~0% 0~5% 토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① 전반적으로 조정장세.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단기간에 따른 후유증으로 숨고르기 장세 가능성. ② 분양시장, 서울지역-재개발과 재건축 일반 분양분. 수도권·지방-신도시 혹은 택지지구 분양분. 불황기에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아파트가 안전자산이 될 수 있음.

😊 크게 없음 😞 금리인상·거시경제 둔화

0%(보합) 0%(보합) 초양극화 추춤



양지영 양지영&C연구소장

① 금리인상, 보유세 등으로 보유에 대한 부담감 커지면서 매수세 꺾여 입주물량 증가와 갭투자 매물 등으로 매물 적체 현상 커질 듯. ② 단독주택 및 상가주택,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오름. 시장 불안으로 건물가치는 떨어지더라도 땅값 상승으로 시장 불황에도 타격 적음.

😊 가격 조정 😞 금리인상·총부세

-5~0% -5~0% 금리인상



이경자 한국금융투자연구원

① 서울 보합, 지방 하락, 경기 하락. ② 토지. 역사적으로 토지는 하락한 적이 없고 특별한 규제가 없음.

😊 GTX 등 광역교통망 확충 😞 총부세 강화 등 규제

0%(보합) 0~5% 잠깐 휴식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

① 4대 변수(금리인상, 대출규제, 세금규제, 입주물량)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 ② 토지: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권을 중심으로 지하철 착공 및 개통 예상지역. 상가발달: 자산가들 중심으로 인기 예상.

**주택(아파트)** 😊 국지적 개별 호재 😞 금리인상 우려, 대출규제 강화, 세금규제 강화, 입주물량 급증  
**상가** 😊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대체효과 😞 경기불황 지속, 금리인상 우려, 공실증가 확산  
**토지** 😊 도로, 철도 개발효과, 3기 신도시 및 남북화해무드 😞 경기불황에 따른 개발수요 감소

-10~-5% -5~0% 경기불황 및 금리인상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① 주택: 서울, 수도권, 광역시 강세장 전망. 9·13 규제에 인한 비조정지역들 강세. 서울 시장 전반적 상승세 유지될 전망. 토지: 신규철도 및 도로교통망계획 외 토지보상금 집행 등으로 강세 지속. 수익형 부동산: 경기침체 직격탄. ② 주택, 토지.

😊 토지: 토지보상금(3기 신도시 등) 😞 상가: 경기침체  
\*주택은 특별한 악재도 호재도 없음.

0~5% 5~10% '뿔뿔일 뉘뉘일'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

① 냉각된 투자심리 지속 전망. 2018년 가격이 많이 된 부동산 위주로 하향 조정 가능성을 예상. 다만 기존(2018년) 상승폭 대비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② 수익형 부동산: 다주택자가 수익형 부동산으로 갈아타는 현상 전망.

😊 상가: 풍부한 유동자금 😞 상가: 경기 침체(창업 및 임대수요 감소)

0%(보합) 0~5% 지역·입지별 양극화 심화



홍준욱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

① 조정 흐름 지속 ② 토지: 3기 신도시 개발 등의 재료가 많아. 최근 5년간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 대비 상승 탄력이 약했음.

😊 신규 주택 착공 부진 😞 경기 둔화 위험

0~5% 0~5% 3기 신도시

2019년 '가상화폐 시장' 전망

# “가격 복구 힘들 것” vs “재상승 여력 충분”

가상화폐(암호화폐·코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2017년 20배(코인마켓캡 기준)에 가깝게 오름세를 탄 후 지난해 5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금융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0'에 수렴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고, 또 다른 일각에선 향후 재상승을 전망하는 등 엇갈린 시각들을 내놓고 있다.

◇비트코인 흥할까 말할까 = 금리를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고 경제의 순환을 유도하는 주류 경제학자들과 비트코인을 금융의 혁신으로 보는 투자자들은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 비트코인 부정론자로 꼽히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비트코인이 가치가 전혀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시장이 루비니 교수의 발언에 주목하는 이유는 2008년 금융 위기를 예측했던 소수의 경제학자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루비니 교수는 “블록체인은 인류 역사상

금융위기 예견 ‘닥터뚝’ 루비니 “가치 전혀 없다” 비판론 투자자 40% “中, 비트코인 투자 나설 것” 긍정적 전망 전문가 “가상화폐, 블록체인 연관성이 시장 미래 좌우”

가장 과대 평가된 기술이며, 비트코인은 모든 스캠의 어머니”라고 평가한다. 그는 가상화폐 버블은 붕괴했으며 가격은 영원히 복구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규 투자자 유입 가능성 여전 =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시세 급락을 겪었지만, 투자자들은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대표적 가상화폐 규제 국가인 중국에서조차 앞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이란 이가 10명 중 4명이나 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시장의 미래를 낙관하는 투자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달 30일 가상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인리스트(Bitcoinist)는 5000여 명의 중국인을 대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친

숙함과 관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0%는 미래 여유 자금을 가상화폐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14%가 가상화폐에 직접 투자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투자자 중 5분의1은 비트코인에 대해서만 알고 있거나 가상화폐에 대해 잘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40%는 이더리움(ETH), 이오스(EOS) 등 주류 암호화폐에 대해, 나머지 40%는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나머지 코인들의 총칭)에 대해서도 해박하다고 답변했다.

사실 일반인들의 이러한 투자심리는 시장에서 꾸준히 나오는 업계 영향력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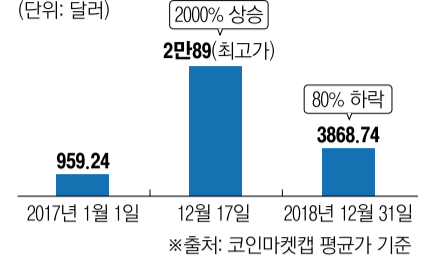
는 인물들의 장밋빛 전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로니 모아스(Ronnie Moas) 스탠포드 리서치 창립자는 2019년 말 비트코인 가격이 2만8000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미국 벤처 투자가이자 비트코인 낙관론자인 팀 드레이퍼(Tim Draper)는 2022년 25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연관성이 관건 =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의 연관성에 따라 시장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코인 비판론자 중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많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해 보자는 주장인데, 여기에 의견이 갈린다. 블록체인을 유지하려면 네트워크에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가상화폐 모델이 이상적인 블록체인 인센티브이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블록체인은 블록정

비트코인 가격 추이(I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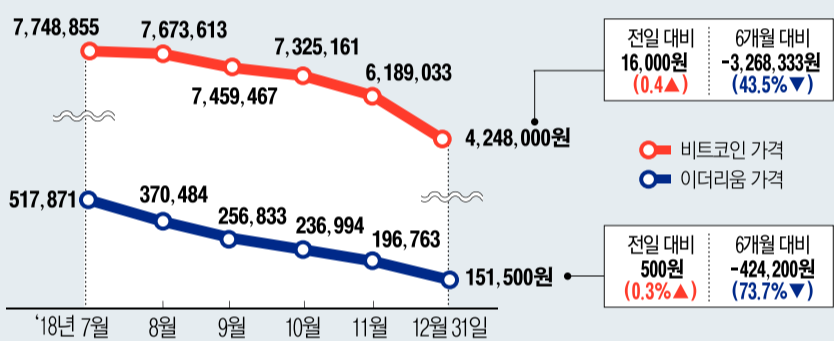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연관성

정부 입장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따로 분리해서 접근 가능
업계 입장①	소수가 관리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가상화폐 투기성 해결
업계 입장②	프라이빗 블록체인만으로 투명성과 보안성 확보하기 어려워 퍼블릭 블록체인과 연동 필요

다수의 참여자에 의해 운영될 때 제대로 된 가치를 지닌다고 입을 모은다. 공공 블록체인에 의해 투명성이 검증돼야 한다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퍼블릭(공공) 블록체인 플랫폼과의 연결성이 탈중앙화 시스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열쇠”라며 “이 과정에서 플랫폼 코인이 경제적 인센티브로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빗썸 지수 (2018년 12월 31일 16: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176,500	-1,600 (0.9%▼)	모네로	52,950	-200 (0.4%▼)
리플	404	-1 (0.2%▼)	비트코인골드	14,950	-450 (2.9%▼)
라이트코인	34,690	-70 (0.2%▼)	이더리움 클래식	5,760	-10 (0.2%▼)
대시	90,250	250 (0.3%▼)	퀀텀	2,486	-51 (2.1%▼)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 정운모 “혁신기업 창업·스케일업 보증 확대”

(기보 이사장)

정운모(사진)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신년사를 통해 “새해 기술혁신 기업의 창업과 스케일업(Scale-Up) 지원을 위해 핵심 정책 분야 보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올해는 정부의 혁신적 포용 국가 구현에 앞장서기 위해 사회적기업·금융취약기업에 대한 포용적 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내년은 기보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라고 강조하며 중소기업 중합지원 기관으로서의 새로운 30년을 함께 준비해나가자고 주문했다.

기보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9년 총 20조2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두려움 없는 창업 분위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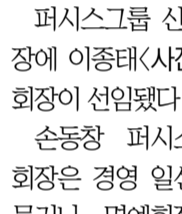
조성하고 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청년창업보증 1조 5000억원 △일자리 창출 7000억원 △4차 산업혁명 4조 원 △전문

기창업보증(교수·연구원 등) 확대 △스케일업 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셜벤처임팩트보증 700억 원 지원 △저신용자 특별보증제도 마련 △금융취약계층·재도전기업인에 대한 보증 지원도 함께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 퍼시스그룹 신입회장에 이종태 ‘창업주’ 손동창 경영일선 퇴진



퍼시스그룹 신입 회장에 이종태(사진) 부회장이 선임됐다.

손동창 퍼시스그룹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으로 추대됐으며, 1985년 퍼시스에 입사한 이종태 퍼시스그룹 부회장이 이번 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이 회장은 셀러리엔 출신 전문경영인이다. 2009년 1월부터 퍼시스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과 한국기아산업협회 고문이사,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위원회 부위원장 및 서울상공회의소 상임의원 등을 역임하며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쳤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 Premium Toothpaste

# 천연유래 식물성분 처방 덴탈 스케일링 치약

### 9無 루바스천연치약

20년 한방발효과학  
100세 건강치아  
루바스가 앞장서겠습니다!

유해 성분  
9無

치은염,  
치주염 예방  
구취, 치태 케어

잇몸질환 예방  
약한잇몸 케어

**LUBAS**  
(주)루바스 바이오 제약

www.lubaskorea.com  
구입문의 1599-0203



# “ 꿈 꿔나요? 백화점 가보세요”

〈황금돼지〉

## 유통가, 기해년 돼지 마케팅

현대·갤러리아百貨 골드바 이벤트 편의점은 돼지고기 신상 도시락 해라 ‘골든 피그 컬렉션’ 등 패션·뷰티업계 금·돼지 모티브 침체된 소비심리에 활력 기대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해를 맞아 유통업계의 돼지 마케팅이 활발하다. 주요 백화점은 신년 할인 기간에 황금 돼지를 경품으로 증정하는 행사를 마련했고 패션·뷰티업체들은 부와 복을 상징하는 금색을 활용하거나 돼지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주요 백화점들은 새해 첫 영업일인 2일부터 신년 세일에 돌입한다. 롯데백화점은 2일 ‘피그 드림(Piggy Dream)’ 행사를 통해 25억 원어치 90여 품목의 의류 및 생활가전을 최대 80% 할인해 판매한다. 예비 ‘맘(Mom)’ 소비자가 백화점 매장 내 ‘세일(SALE)’이 적힌 문구를 사진 찍어 ‘#황금돼지맘’ 등으로 해시태그를 달면 추첨을 통해 임신부 요가 문화센터 강좌 수강 기회도 제공한다.

같은 기간 현대백화점은 금 400돈(1500g) 규모의 경품 행사를 내간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신년 세일을 맞아 순금 돼지 골드바 경품 이벤트와 탁상용 캘린더 증정 등의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신세계는 SSG닷컴과 이마트몰, 신세계몰 모바일 앱에서 음성 검색을 통해 “꿀꿀”을 외치면 참여 고객 모두에게 앱전용 7%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편의점 GS25와 CU(씨유)는 돼지고기를 주요 식자재로 활용한 신상품을 선보인다. GS25는 황금 제육 도시락, 황금왕돈까스 도시락, 매콤 불고기&달걀 볶음밥 등 돼지고기를 활용한 기해년 첫 신상품을 4일부터 판매한다. CU는 돼지고기를 활용한 9가지 반찬을 담은 ‘새해엔 모두 다



돼지 도시락’을 한정으로 선보인다.

패션뷰티 업계도 황금돼지를 앞세운 마케팅이 활발하다. 화장품 브랜드 해라는 ‘2019 골든 피그 컬렉션(GOLDEN PIG COLLECTION)’을 한정 판매한다. 이 제품은 붉은색과 금색을 활용한 황금돼지 캐릭터가 제품 곳곳에 그려져 있다. 에뛰드하우스는 ‘해피 위드 피글렛 컬렉션’의 블러셔(9800원), 에어무스(1만500원) 등을 황금돼지의 해를 기념해 판매한다. 미샤는 황금돼지해를 맞아 ‘피그드림 에디션’을 출시했으며, 이 중 ‘피그드림 꿈 키트’는 저금통으로 쓸 수 있는 핑크빛 돼지 모양 케이스에 담겼다.

BYC는 돼지 관련 디자인이 특징인 남성용 레드 박사 2종을 출시한다. 돼지 패턴 박서는 빨간색 바탕에 돼지와 점 패턴으로 디자인한 고급면사 60수 제품이다. 스와치는 시계줄이 황금색인 ‘황금돼지시계(11만6000원)’를 선보인다. 시계 케이스도 돼지 모양을 한 붉은색 모형이다. 롯데주류는 7700명만 판매되는 와인 ‘울프블라스 골드라벨’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황금색으로 된 와인 라벨에 돼지가 그려져 있어 황금돼지의 해를 기념하는 상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황금돼지가 복과 풍요로움을 의미하면서 업계의 돼지 활용 마케팅이 늘고 있다”면서 “소비심리가 살아나 침체한 시장에 활력을 넣어주길 바라는 마음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박미선 기자 only@

## 임시 대표체제 돌입한 남양유업

구조조정 추진 이정인 前대표 임원 갈등 책임지고 돌연 사임

남양유업은 31일 이정인 대표집행임원 체제에서 이광범 대표집행임원 임시 체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광범 상무는 남양유업 영업본부장과 경영지원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이정인 남양유업 대표의 돌연한 사임 때문이다. 이정인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28일 퇴임식을 갖고 취임 1년 만에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 그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17년 1월 남양유업이 창사 이래 최초로 외부에서 영입한 인물이다.

남양유업은 최근 5년간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3년 대리점에 물량을 떠넘기는 ‘밀어내기’ 영업에 따른 이른바 ‘갑질 논란’으로 소비자 불매 운동이 벌어지면서부터다.

홍 회장의 이 전 대표 카드는 통했

다. 쇠락의 길을 걷던 남양유업은 이 전 대표의 취임과 함께 수익성이 다소 개선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8년 3분기까지 매출은 80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49억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0% 늘었다.

하지만 부임 직후 벌어진 고강도 구조조정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취임 후 조직 쇄신을 추진하고, 프리미엄 제품 개발과 해외 수출에 박차를 가했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 수를 줄이고 관공비를 크게 낮추면서 기존 임원들의 반발을 사 갈등이 불거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유업은 아직 후임 대표를 정하지 못했으며 당분간 이상무 임시 대표 체제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신임 대표 선정은 아직 미정”이라면서 “내부적으로도 정해진 바 없어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 일상복이야, 비즈니스 룩이야

스포츠 브랜드 ‘비즈니스 캐주얼’ 앞세워 겨울매출 견인

스포츠 브랜드가 일상복은 물론 출퇴근 복장으로 도입할 수 있는 ‘비즈니스 캐주얼’ 룩으로 변신을 꾀하며 겨울 시즌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보온성은 살리되 무스탕이나 양가죽, 크리스탈 장식 등 고급 소재나 장식을 사용해 정장 바지 또는 청바지, 면바지 등의 복장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린다는 게 특징이다.

특히 골프웨어 업계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와이드앵글은 겨울철 패셔니스타의 아이템으로 손꼽히는 무스탕 소재를 접목한 ‘리버시블 무스탕 재킷’을 선보여 젊은 여성층으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출시된 지 한 달도 안 돼 전체 물량의 24% 이상이 소진되며 빠른 판매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제품은 안과 밖을 뒤집어 양면으로 입을 수 있도록 디자인해 활용도를 높였다. 겹감은 양가죽, 안감은 리얼 양털로 제작돼 보온 효과를 살렸으며 안과 밖의 컬러를 다르게 배합해 다양한 코디가 가능하다.

가스텔바작은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과




골프웨어 와이드앵글 ‘리버시블 무스탕 재킷’.


협업을 통해 선보인 ‘크리스탈 다운’이 출시 두 달도 채 안 돼 완판을 기록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다채로운 빛의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로 장식을 준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가스텔바작의 스타일리시한 핏이 여성 고객의 높은 관심을 끌어들였다.

아웃도어 브랜드 K2는 심플한 디자인의 비즈니스 캐주얼 다운 ‘폴(PAUL)’을 출시했다. 남성 중해비 다운으로 블랙, 네이비 등 모던한 컬러와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와이드앵글 마케팅팀 김현희 과장은 “자유롭고 편안하면서도 실용적인 스타일을 선호하는 3040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중전의 기능성 소재나 퍼포먼스 웨어로만 국한하지 않고 패션 업계 전반에 유행하는 세련된 디자인 또는 소재를 접목함으로써 스포츠나 아웃도어 활동 이외에 외출, 여행, 오피스 룩 등 활용도를 넓혀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 백신선도국에서 백신선진국으로!

아무도 가지 않은 길, 하지만 누군가는 가야 하는 길  
독감 없는 세상을 위해 달려 온 **백신 선구자**에서  
세계인들의 건강을 수호하는 **글로벌 백신 리더**—



- 2009 신종플루, 계절독감백신 국내 최초 생산
- 2011 아시아 최초 3가 독감백신 WHO PQ\* 획득
- 2014 3가 독감백신 누적 생산 1억 도즈 돌파
- 2015 국내사 최초 4가 독감백신 개발
- 2016 세계 2번째 4가 독감백신 WHO PQ\* 획득

백신강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  
**지씨플루**가 이어갑니다



광고심의필 : 2018-1444-103100

\*Pre-Qualification: 사전적격심사

# 1월 수도권 1만4000가구 분양

지난해 대비 4배 이상 늘어  
위례·인천 검단신도시 등  
12월 연기물량 대거 몰려

올해 주택시장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청약시장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이다. 특히 무주택자에 대한 청약 비중이 높아지면서 내집 마련을 노리는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1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월에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1만9494가구 중 1만 4433가구(오피스텔 포함, 임대 제외)가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월 분양했던 3525가구보다 4배 이상 많은 물량이다.

건설사별 1월 분양예정 물량에다 12월 분양예정이었다던 위례 및 인천 검단신도시 등의 분양물량이 대거 1월로 미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2월은 28일까지로 전체 일수가 짧은 데다 최대 명절인 설까지 겹쳐 더 연기하기 쉽지 않은 것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동대문

## 1월 수도권 주요 분양예정 단지

위치	단지명	전용면적 (㎡)	총가구수 (일반분양)	시공사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4구역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84~177	1425(1253)	롯데건설
경기도 부천시 중동	신중동역 랜드마크 푸르지오시티	19~84	1050	대우건설
경기도 안양시 비산2동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	59~105	1199(659)	대우건설, 삼성물산
경기 하남 감일지구 B3,4블록	하남 감일 스위트	74~84	1662	LH
위례신도시 A3-4a블록	힐스테이트 북위례	92~102	1078	현대엔지니어링

구 청량리4구역에서 1253가구가 일반분양되며 경기도에서는 위례, 중동신도시 등에서 8846가구, 인천은 검단신도시를 중심으로 433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주요 분양 물량을 보면 우선 서울에서는 동대문구 전농동 620 일대 청량리4구역 '청량리역롯데캐슬 Sky-L65'를 선보인다. 롯데건설은 지상 최고 65층 4개 동, 총 1425가구를 짓고 이 가운데 전용면적 84~177㎡ 1253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에서는 대우건설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59 일대에서 '신중동역 랜드마크 푸르지오 시티'를 공급할 예정이다. 최고 49층으로, 오피스텔 전용면적 19~84㎡ 1050실과 섹션 오피스 506실, 상업시설로 구성된다.

안양시 비산2동에서는 비산시장 주변 재건축으로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이 1199가구 중 전용면적 59~105㎡ 659가구를 일반분양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하남 감일지구 B3블록과 B4블록에서 전용면적 74~84㎡ 815가구와 847가구 등 총 1662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주택 가구주이어야 하며, 지역 우선(30%)은 하남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올러 위례신도시 A3-4a블록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힐스테이트 북위례'를 공급하고 우미건설은 인천 검단신도시 AB15-1블록에서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 퍼스트'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74~84㎡ 총 1268가구다. 구성현 기자 carlove@



**한파 녹인 분양열기** 최근 주택시장의 위축에도 분양시장은 여전히 활기를 띠면서 지난 주말 전국 건본주택에는 9만여 인파가 몰렸다. 사진은 지난 주말 다산신도시 자연&자이 건본주택에 몰린 인파 모습. 사진제공 GS건설

## 오피스텔 기준시가 7.52% 오른다

서울 송파 '롯데월드타워' ㎡당 914만4000원 최고  
상업용 건물도 7.56% 올라... 지난해보다 2배 상승

올해부터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평균 기준시가가 각각 7.52%, 7.56% 상승한다. 지난해보다 2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1일부터 적용할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31일 고시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때 사용한다.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의 경우 실거래가가액으로 과세되지만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취득·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 표준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와 관련이 없다.

국세청은 매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한다.

지난해 고시 물량은 전년보다 '동수'는 11.5% 증가한 2만204동, '호수'는 8.9% 늘어난 121만5915호로 집계됐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전년 대비 평균 7.52%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오피스텔은 9.36%, 상업용건물은 8.51% 올랐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1위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으로 ㎡당 914만4000원이었다. 이 오피스텔은 이번 공시에 신규로 올라온 부동산이다. 이어 서울 강남구 '피엔폴루스'가 ㎡당 631만5000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 오피스텔은 최순실 씨가 거주했던 주상복합건물로 알려졌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전국 상위 5곳 중 3곳은 서울 강남구에 있었고, 서울 송파구와 마포구에 각각 1곳씩 자리했다.

이번 고시는 국세청 세무 사이트 '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2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다. 김소희 기자 ksh@

유기농 녹차가 함유된 메타그린으로 건강 더하기

**VITALBEAUTIE**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건강기능식품  
녹차추출물, 비타민 C  
50.4g [560mg X 90정]

**입은 즐겁게  
몸은 가볍게**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유기농 녹차에서 얻은 카테킨을 함유한 메타그린 이제, 하루 한 번 메타그린을 챙겨보세요  
체지방 감소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무너진 신진대사를 바로잡아줍니다

**제품상담  
구매문의**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

건강한 아름다움의 시작

**VITALBEAUTIE**

## 대림산업, 플랜트 1조 적자 비상경영 돌입

도시정비 수주액은 2조2061억 '업계 1위'... 사업별 희비

대림산업이 기해년을 맞아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상황이다. 도시정비사업에서 업계 1위 자리를 차지했지만 플랜트 부문은 누적된 손실을 감당 못 하고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1일 정비업계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지난달 29일 노량진8구역 재개발 조합이 개최한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경쟁사인 한화건설을 제치고 시공사로 선정됐다.

노량진8구역 재개발사업 공사금액은 2333억 원으로, 대림산업이 이를 수주함에 따라 지난해 도시정비사업 총수주액은 2조2061억 원을 달성하게 됐다. 이로써 HDC현대산업개발(2조311억 원)을 제치고 2018년 정비사업 수주 1위를 차지하게 된 셈이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정비사업 수주액이 직전해(8718억 원)보다 153% 증가하는 등 눈에 띄게 개선된 실적을 보였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강화 등 규제 정비사업이 위축된 가운데 이뤄낸 쾌거다.

수주 사업지는 전국 9곳으로 △서울 문정동136번지 재건축 △인천 도화1구역 재개발 △경기도 시흥대야3 영남아파트 재건축 △부산 남산1구역 재건축 △부산 대평1구역 도시환경정비 △부산 반여4구역 재개발 △부산 서·금사축진5구역 재개발 △대구 서대구지구 재개발 △경기도 이천 관동동 재개발 등이다.

반면 플랜트 부문은 '울상'이다. 지난달 28일 임현재 대림산업 플랜트사업본부장은 사내 인트라넷 시스템에 '비상경영 선언문'을 올렸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플랜트사업 누적 적자가 1조 원 이상 치솟으면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올해 1월 1일부로 플랜트 사업부는 사업 수행 및 관리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통합한다. 또 본부 전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임원을 대폭 줄이고 잔류 임원의 임금 30%를 반납한다.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근무지를 지방으로 이전하며, 3년간 임금 동결·승진 중단을 실시한다. 이신철 기자 camus16@

# 불법 체포 상태였다라도 음주측정 거부하면 유죄

### 대법 “경찰, 음주 확인 위해 잡았던 행위 정당” 원심 뒤집어

경찰이 음주운전 의심자에 대한 음주 확인을 위해 경찰서로 연행하던 중 불법 체포를 했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음주가 확인될 경우 사전에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불법 체포 여부와 상관없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오모(27)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 씨에 대한 음주감지기 시험결과 음주반응이 나타났으므로 이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위해 예정돼 있는 경찰의 일련의 요구에 불응했다면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오 씨는 2016년 5월 운전 중 시비가 붙은 다른 차량 운전자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허위 신고임을 파악한 후 반대로 오 씨에 대한 음주감지기 시

험을 하자 음주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오 씨를 음주측정기가 있는 인근 지구대로 데려가던 중 순찰차에서 내리겠다는 요구를 듣고 하차시켰다. 이후 하차 현장으로 음주측정기를 가져오는 인근 지구대 경찰을 기다리던 중 도주하려는 오 씨를 5분 동안 붙잡아뒀다.

재판에서는 경찰이 불법 체포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을 두고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오 씨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는 불법체포한 상태에서 이뤄진 만큼 위법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은 오 씨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피해 현장을 이탈하려 도주함으로써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고 이후 경찰이 붙잡아 둔 행위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효진 기자 js62@



기해년의 '복덩이'들 60년 만에 돌아온 2019년 황금돼지해를 앞두고 충남 청양읍의 방목 돼지농장 송조농원 산실에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아기 돼지들이 희망과 행복을 전하고 있다. 최재용(63) 농장주는 “이곳 돼지들은 곡물 사료대신 신선한 풀, 약초를 캐 먹고 평생 주사 한 번 맞지 않고 마음껏 뛰놀며 성장하기 때문에 활력이 넘치고 구제역 걱정 없이 건강하다”고 말했다. 청양=고이탄 기자 photoeran@

## 고의성 없이 친인척 보육 도우미 채용 어린이집 원장에 보조금 환수 못한다

### 법원 “부정수급 의도 없었다”

어린이집 원장이 친인척을 보육 도우미로 채용해 보조금을 받았어도 고의성이 없다면 지자체가 보조금을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장 박모 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반환 명령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박 씨가 자녀 신모 씨를 보육 도우미로 채용한 뒤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217만여 원을 받았다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반환 명령을 받은 데서 비롯됐다. 앞서 서초구청은 ‘서울시 2017년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계획’과 ‘2017년 서울시 보

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등을 근거로 박 씨에게 보조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2017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은 보육 도우미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원장의 친인척을 보육 도우미로 채용한 경우 자격이 박탈된다. 또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박 씨가 고의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 등록된 서울시 사업계획에는 보조금 지급 제한 내용이 빠져 있다”며 “박 씨가 친인척을 채용한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윤한솔 기자 charmy@

### 10세 미만 ‘억대 증여’ 1221건 1년새 71%↑…10억 이상 52건

부모 등으로부터 억대의 재산을 물려받은 10세 미만 유아의 증여세 부과 건수가 2017년 7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공제가 줄고 집값이 더 오르기 전 절세 차원의 증여로 풀이된다.

1일 국세청의 ‘2018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증여세 결정 건수는 14만6337건으로, 2016년 12만4876건에서 17.2% 늘었다. 증여 재산 가액은 24조5254억 원으로, 전년(18조401억 원)보다 6조5000억원(36%) 늘었다. 건당 평균 증여액도 1억 6760만 원이다. 1억 원 이상 증여는 수증인 연령대가 어릴수록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세 미만에 대한 증여 건수는 2016년 715건에서 2017년 1221건으로 70.8% 늘었다. 이 가운데는 증여 재산 가액이 10억 원을 넘는 경우가 52건이나 포함됐다. 김소희 기자 thgm17586@

## 손해배상액 등 계산,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 대법, 간편 계산 서비스 제공

새해부터 자동차 사고나 산업재해를 입었을 경우 예상 손해배상액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대법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손해배상액·변제상계충당액·상속지분·이자 등을 산출해 소송 자료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한 ‘손해배상액 등 계산기’ 서비스를 전자소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손해배상 등 계산기의 주요 기능으로는

우선 자동차 사고, 산업재해 사건의 경우 사건 유형, 생년월일, 사고일자 등 기본사항을 입력하면 연령, 여명종료일, 노동능력상실률, 연도별 노인단가를 자동으로 반영해 각 기간별 일일수입을 계산해 준다.

상속분 간에 계산은 상속관계인을 입력하면 상속 지분을 자동으로 보여준다. 다만 피상속인이 1991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변제상계충당액 계산은 이자 제한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변경 연혁에 맞춰 기간별로 제한 이자율을 제공한다. 장효진 기자 js62@

###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COVERSTORY** 광내고 기름찰하면 고수가 될 수 있다

- PART1. 고수의 품격 - 멈추지 않는 한, 누구나 인생 고수가 된다
- PART2. 대한민국 고수를 모임 - 구루(guru)가 되기 위해 똘똘 연선했던 조합
- PART3. 도전의 고수 - 최고령 보디빌더 서명강 씨, 인스타그램 스타 김석재 씨
- PART4. 생활의 고수 - 도시 속 미용 고수 정성미용실 신상순 씨
- PART5. 재능의 고수 - 외국에서 더 밝히는 섬유공예작가 이소라 씨
- PART6. 숨은 고수를 다 모여 - '숨고' 숨은 고수를 찾습니다!
- PART7. 누구나 고수가 될 수 있다 - 동년기자들의 답글

**월매이징** 머릿속 폭탄 뇌졸중, 의심되면 무조건 응급실 찾아야  
흔히 증봉으로 불리는 뇌졸중은 중장년의 대표적 질환일 뿐 아니라, 특히 겨울철만 되면 더욱 속을 썩인다. 보이지 않는 뇌 속에서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시한폭탄인 데다, 후유증이 고생하는 주변의 시선을 보면 불안감은 배가된다. 게다가 '올드타임, 즉 발병 후 적당한 치료시기를 놓치면 남재라는 사실은 더욱 시니어를 옥죄는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 전문의들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과 서권덕(徐權德·40) 고수를 통해 뇌졸중에 대해 알아봤다.

**박완식이 만난 귀촌 사람들** 말리지 매 난 일박에 몰라  
겨울 캄바람이 맴치게 불어치는 산골이다. 마을의 풍경은 널찍해 한철한 맛을 풍긴다. 신비할 따라 충동이 들었던 주택들. 잠잠마다 시원하게 탁 트인 조망을 자랑할 게다. 가구 수는 50여 호, 90%가 귀촌이나 귀농을 한 가구다. 하, 귀촌 귀농 바람은 바야흐로 거센 조류를 달아간다. 마을 이장은 김종용 씨. 그는 이 마을에 입성된 1호 귀농인이다. 그의 소개나 추천에 이끌려 이곳으로 당당히 귀촌한 지인들도 많다고.

**신라선가 만난 사랑**

질 다스린 상처는 아픔을 건다는 힘이 된다  
최현숙  
구술생애사 작가

요란차림 실려낸 엄마의 음식(저민차 허의까지 알리고) 한식 전도사 최우 김수미

미나일이 러쉬를 만들고 걸재가 젊어지게 한다  
주한 외교관들에게 사랑받는 픽터 김

**타박타박 도보여행** 피란수도 부산의 추억을 더듬는 길 '초랑이바구길'  
수도권 거인이 영하로 푹 떨어진 날, 부산역에 도착했다. 평소대로라면 부산역 옆 돼지국밥 골목에서 국밥 한 그릇 먹어보고 여행을 시작했을 것이다. 오늘은 초랑이바구길에서 시골국밥을 먹기로 했다. 구수한 시골국밥을 호호 불어가며 먹을 생각에 발걸음이 빨라졌다.

**머니테크** 한겨울 녹이는 뜨거운 예금 열풍... 이자가 워길래 '고금리 인진지대로...'  
코스피지수가 한때 연 고점 대비 20% 넘게 추락하는 등 격렬하게 변동하면서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자들의 손실이 크게 늘었다. 금융 전문가들은 2019년 금융시장도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내다본다.

**시니어 밤상**  
홈메이드 사랑음식 당뇨에 좋은 한 끼로 새해는 더욱 건강하게

**부치지 못한 편지**  
꽃 피는 날 전화를 하겠다고 했지요  
이규리 시인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광고문의 Tel, 02-799-2698 Fax, 02-799-2666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VitaminHouse 1588-8529 <http://www.vhmall.net>

김미숙의 건강관리 비법?!

# 저는 **차가버섯**으로 걱정 없어요

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시베리안 차가버섯



# “새해 꿈요? 능력+업무 멀티플레이어 돼야죠”

## SK하이닉스 신입 2년차 들어선 유경아 선임

### 작년 10월 文대통령 M-15 방문 때 신입사원 대표로 소감 발표 “도리불언하자성혜(桃李不言下自成蹊), 내 주위에 사람 모이게”

SK하이닉스의 신규 반도체 공장 M15 준공식이 열렸던 작년 10월 4일, SK하이닉스 신입사원 중 한 명이 연설자로 나섰다. 대통령 등 수많은 귀빈이 참석했음에도 역사적인 날에 참석한 자신의 소감을 당당히 말했다. SK하이닉스 신입 직원 대표인 유경아 선임 얘기다. 그녀의 새해 소망은 무엇일까.

유경아 선임은 “아직도 어떻게 신입사원 대표로 발표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행사에서 SK하이닉스 신입사원으로서 포부를 말할 기회를 얻어 감사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당시 자리에는 50여 명의 신입사원이 같이 있었다”며 “동기들과 함께 M15 슬로건인 ‘함께 여는 미래, 새로운 도전’을 외칠 때는 가슴이 벅찼다”고 덧붙였다.

입사 4개월 차인 그녀는 현재 선배들에게 직무교육을 받으며 M15 제조팀에서 업무를 파악하고 있다. M15 제조팀은 낸드 플래시를 주로 생산하는 M15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지표를 관리하면서 자동화 시스템을 운용한다.

유 선임은 “공정 셋업 과정이라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갈 때가 많다”며 “하지만 선배들이 먼저 친근하게 다가가 주셔서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 같은 팀에 동기들도 5명이 있어서 회사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입사원인 만큼 여러 면에서 부족하지만 유 선임은 새해에 이루고 싶은 몇 가지 목표가 있다. 유 선임은 “아직은 배울 게



SK하이닉스 유경아 선임은 새해 소망으로 “업무 외에도 다양한 능력을 살려서 멀티플레이어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 SK하이닉스 블로그

많아서 도움을 받는 상황”이라며 “주어진 업무를 빨리 익혀서 다른 구성원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장점을 살려 다양한 분야에 일하고 싶다는 포부 또한 갖고 있었다. 유 선임은 “장기적으로 장점이 중국어 특기를 살려서 중국어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싶다. 업무 외에도 다양한 능력을 살려서 멀티플레이어가 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유 선임은 대학 시절 중어중문학을 복수 전공하면서 중국어에 대한 지식을 쌓으면서, 고전에 나오는 옛 선현들의 통찰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좌우명은 사기에 나오는 ‘도리불언하자성혜(桃李不言下自成蹊)’이다. 복숭아나무와 자두나무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밑에 절로 길이 난다는 뜻이다. “스스로 멋진 사람이 되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교훈을 담고 있어요. 이 말을 되새기며 스스로를 갈고 닦아 나가겠습니다.”  
현영대 기자 yeongdai@

## 이동재 前국립해양조사원장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임명

해양수산부는 2일자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 이동재(55·사진) 전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을 임명했다.



이 선임 원장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및 미국 보스턴대에서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지식경제예산과장과 국고과장, 해수부 정책기획관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을 역임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 정동영 소비자안전센터소장에 이득연



한국소비자원은 신입 상임이사에 정동영(왼쪽 사진) 피해구제국장, 신입 소비자안전센터 소장에 이득연(오른쪽) 정책연구실장을 선임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동영 상임이사는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를 거쳐 1992년 한국소비자원에 임용된 후 경영지원실장, 서울지원장, 피해구제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득연 소비자안전센터 소장은 1987년 한국소비자원에 임용된 후 정책연구본부장, 정책연구실장 등을 거쳤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다. 남주현 기자 jooh@

##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대표 성준호

스마일게이트 그룹은 지주사인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대표에 성준호(사진) 스마일게이트 메가랩 및 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선임했다고 31일 밝혔다.



성 대표는 글로벌 콘텐츠 사업 기회 발굴, 신규 콘텐츠·VR(가상현실) 게임 등 신사업 개발을 이끌고, 스마일게이트 그룹의 COO(그룹 최고 운영 책임자)로서 전반적인 그룹 경영을 맡아왔다.  
김범근 기자 nova@

## 부음

▲박종현 씨 별세, 박광수(NH투자증권 정보보호본부장)·정자·정희·정란(주 EMT 총무과장) 씨 부친상, 이영호(자영업)·유문성(자영업) 씨 장인상, 김경미 씨 시부상 = 30일, 고려대 구로병원 장례식장 B102호실, 발인 1월 2일 오전 6시 30분, 02-857-0444

▲이계욱 씨 별세, 이봉희(경주여자정보고 교사), 성희(대구우전초 교사)·태주(안강제일초 교사)·영숙(울산동부초 교사)·영남(ubc울산방송 보도팀장)·영주(대전외삼초 교사) 씨 부친상, 서창현(공정거래위원회 대구소장), 이석용(서린디앤씨 부사장), 문동성(연일형산초 교사), 노준영(한국수력원자력과장), 권기석(삼성 SDS 수석), 김석봉(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씨 장인상 = 31일, 대구전문장례식장 201호, 발인 1월 2일 오전 6시, 010-2620-2111

## 김문연 前디즈니채널코리아 사장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장에 선임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제2대 회장에 김문연(사진) 전 디즈니 채널코리아 사장이 선임됐다.



김 선임 회장은 최초로 PP사업자가 허가됐던 1993년 제일기획 케이블TV사업부에서 일하면서 유료방송 업계에 입문했다. 중앙방송대표이사, 디즈니채널코리아 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범근 기자 nova@

## ‘16년간 서산 쌀 수매’ 현대오일뱅크, 농식품부 장관상



현대오일뱅크가 우리 쌀 사랑의 공로를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식량정책 유공자 표창’에서 현대오일뱅크는 지역 쌀 수매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쌀 소비 진작에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현대오일뱅크는 2003년 대산공장이 있는 서산 지역 쌀을 수매해 불우이웃들에게 사용해 온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약 1만 톤, 시가 216억 원 상당의 서산 지역 쌀을 수매했다. 2006년부터는 주유소 경품 이벤트와 연계해 전국 2300여 개 주유소 및 충전소를 중심으로 568만 명의 고객에게 지역의 햅쌀을 제공해 오고 있다. 변효선 기자 hsbun@

## 인사

-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경제정책국장 이익원
- ◆조달청 <과장급 전보> △서비스계약과장 박철웅 △공사관리과장 이현우
- ◆특허청 <부이사관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김기범 △특허심판원 심판관 김명섭 <과장급 전보> △국토환경심사과장 황성호 △농림수산식품심사과장 신경아 △반도체심사과장 곽준영 △자동차심사과장 백은기 △고분자심사과장 이숙주 △차세대수송심사과장 이진욱 △바이오심사과장 최인선 △특허심판원 심판관 김중화 △특허심판원 심판관 계승호 △특허심판원 심판관 김성남 △특허심판원 심판관 강전진 △특허심판원 심판관 이석범 △특허심판원 심판관 김희진
- ◆농촌진흥청 <과장급 승진>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장 김진형
- ◆산림청 <고위공무원 전보> △산림청공본부장 김용관 <과장급 전보> △법무부감사담당관 조준규 △산림청자연과장 한정술 △영주국립관리소장 이영록
- ◆우정사업본부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지방우정청장 이동형 △경인지방우정청장 송관호 △부산지방우정청장 김성철 △충청지방우정청장 박종석 △전북지방우정청장 전성호 <3급 전보> △우정사업조합본부 경영기획실 경영총괄담당관 이영훈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 금융총괄과장 김도균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 보험기획과장 이동명 △우정사업본부 운영지원과장 김동주 △서울지방우정청 서울중앙우체국장 정현철 △서울지방우정청 서울은평우체국장 하재욱
- ◆국민연금공단 <실장급> △수탁자책임실장 최성제 △사모투자실장 최형돈 △부동산투자실장 김현수 △인프라투자실장 김지연 △기금정보실장 오대열 △대외협력담당관 박원우 <팀장> △투자전략팀장 손철 △투자기획팀장 한성희 △책임투자팀장 강신일 △국채투자팀장 신호열 △해외주식투자팀장 정은수 △사모투자1팀장 황미옥 △사모투자2팀장 배학진 △부동산투자1팀장 한병학 △부동산투자2팀장 오은정 △인프라투자1팀장 허정권 △인프라투자2팀장 고광범 △기금정보운영팀장 조현정 △기금정보분석팀장 박일규 △대외협력팀장 최은규
- ◆건강보험공단 <선임실장 및 본부장 전보> △기획

- 선임실장 원인명 △정수선임실장 성백길 △급여성 임실장 정해민 △급여성임실장 신순애 △장기요양선임실장 현재용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선임실장 홍무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코디네이터단장 신일호 △서울지역본부장 김덕수 △광주지역본부장 이원길 △경인지역본부장 진종오
- ◆한국금융연구원 <승진> △김영도 선임연구위원 <보직발령> △송민규 자본시장연구실장 △이경형 연구지원실장
- ◆한국기계연구원 △첨단생산장비연구본부 3D프린팅장비연구실장 이창우 △에너지기계연구본부 플랜트융합연구실장 최병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장 김중선
- ◆한국세라믹기술원 △사회적기치창출실장 정계성 △연구기획·지원실장 권형주 △에너지효율소재센터장 정성민 △광·전자소재부품센터장 김진호 △나노소재·공정센터장 윤영준 △기공성형지원센터장 박운현 △분석기술센터장 김선택 △도자융합기술센터장 황광택 △엔지니어링세라믹센터장 류성수 △세라믹 섬유·항공소재센터장 조광연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장 이진형
- ◆한국소비자원 <1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박재규 △감사실장 이정현 △시험검사국장 정진향 <2급 승진> △기획조정실 경영혁신팀장 김만호 △피해구제국장 김대중 △위해해정국장 윤경현 △분쟁조정사무국장 원혜일 △서울지원 금융보험팀장 황기두 △정책연구실 정책개발팀장 이경아 △시험검사국 시험기획팀장 이상호 <부서장 전보> △대외홍보실장 장은경 △경영지원실장 박운하 △시장조사국장 문성기 △정책연구실장 박희주 △정보교육국장 박정용
- ◆서울연구원 <보직 발령> △도시사회연구실장 백선혜 △교통시스템연구실장 이신혜 △안전환경연구실장 송인주 △도시외교연구센터장 김원호
-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보직 임명> △재정지원부장 김태우 △경영기획부장 심규남 △감사부장 임동철 △인재개발팀장 강현수 △기관평가팀장 홍성관 △행정선진화팀장 안효창 △홍보문화팀장 직무대행 허경서
- ◆한국언론진흥재단 △검사역실장 이종경 △경영기획실장 최대식 △지역언론지원국장 전원주 △미디어진흥실장 정민 △미디어연구센터장 김영주 △광고기획국장 장부영 △광고매체국장 황호출 △뉴스유통국장 정대일 △기획예산팀장 김경국 △경영지원팀장

- 이상기 △재무회계팀장 김현민 △지역언론팀장 이영욱 △저널리즘지원팀장 양승혜 △광고기획팀장 홍원철 △광고혁신팀장 송은숙 △뉴미디어광고팀장 유재관 △인쇄광고팀장 서인식 △방송·옥외광고팀장 정문규 △신문유통팀장 이원섭 △뉴스저작권팀장 신운진 △뉴스빅데이터팀장 박재현 △정보기술팀장 조운태
- ◆화재보험협회 <팀장 이동> △화재환경시스템팀장재계 △특수진단팀 박용호 △방내화팀 최동호 <지부장 이동> △인천지부 유성기 <부지부장 이동> △인천지부 김주영
- ◆한국남부발전 △안전관리처장 김광규 △안전기동반장 임채현 △사회복지지원실장 강태길 △인재경영실장 김중대 △발전기획실장 김경삼 △스마트기술키워드 T/F장 이기현 △태양광사업실장 신의섭 △풍력사업실장 김상범 △하동발전본부 제2발전소장 김민수 △“안전품질실장 정현일” △기술지원실장 지석근 △부산발전본부 발전운영실장 양다모 △남제주발전본부 발전운영실장 김태완 △삼척발전본부 발전운영실장 이은섭 △기술연구소 소장 직무대행 류주용 △윤리준법부장 김용기 △총무부장 이창현 △회계세무부장 김미영 △디지털혁신부장 박준영 △정보기술융합부장 이은경 △전력거래부장 송상욱 △스마트기술키워드팀장부장 임성욱 △연구개발부장 김승우 △기후환경실장 주재홍 △환경사업담당부장 윤영배 △안전총괄부장 이환길 △재난관리부장 이은 △품질관리부장 임규규 △태양광발전부장 이광수 △풍력발전부장 김달태 △신에너지사업부장 안효홍 △해외신재생부장 이진우 △해외화력부장 김현철 △해외사업실부장 강지훈 △해외사업지원부장 정훈태 △계약재실장 손우원 △동반성장부장 이혜규 △연료조달부장 고대석 △정전연료부장 김현주
- ◆KB증권 <전보> △FICC 운용담당(상무보) 이철진
- ◆DB생명 <상무 승진> △GA사업본부장 김홍조 △IT담당 김주엽 <담당 승진> △법인사업본부장 오종근 △고객지원담당 태진섭
- ◆DB손해보험 <실장 및 본부장 승진> △감사실 조원성 △신사업부 본부장 △전략사업부 본부장 김준근 △개인사업부 본부장 박성록 <상무 승진> △홍보팀 신혜용 △신사업마케팅팀 박영식 △재무심사팀 임재환 △자동차보상본부 해대희 △공복사업본부 남석원 <담당 승진> △호남사업본부 임덕은 △자동차업무팀 김학출 △인사팀 심재철 △개인마케팅팀 최규호 △일반보험업무팀 류석 △영인교육팀 김형훈 △IT지원팀 최

- 성환 <상무 이동> △전략혁신팀 고영주 △보상기획팀 이범욱 △장기업무팀 이대진 △장기보상본부 윤석준 △준법감시팀 이준하 △경영관리팀 남승형 <담당 이동> △정보보호팀 손승규 △법인3사업본부 김창훈
- ◆오렌지라이프 <임명 임명> △FC채널관리부부장(전무) 최동영
- ◆기흥증권 <부장 승진> △컴플라이언스팀 유영진 △경영기획팀 최명태 △키움금융센터CS운영팀 최태환 △기업금융2팀 배세열 △프로젝트투자팀 김광빈 △투자전략팀 서상영
- ◆일동제약그룹 · 일동홀딩스 △커뮤니케이션실장 상무이사 이광현 · 일동제약 △의뢰영업1본부장 상무이사 김철 △의뢰영업2본부장 상무이사 배용준 △의뢰영업3본부장 상무이사 김성주 △병영영업1본부장 상무이사 김현중 △병영영업2본부장 상무이사 박문수 △중앙연구소 IS그룹장 수석 이홍섭 △중앙연구소 BR그룹장 수석 권혁상 △중앙연구소 DP그룹장 수석 이상영 △부산경남지점장 부장 이현학 △대구약국지점장 부장 서승욱
- ◆화승그룹 · 화승인도네시아(HWI) △부사장 김광현 △이사 오준학 · 화승비나(HS VINA) △전무이사 이상대 △이사 김재필 △ 전병명 △이사부장 김은숙 △ 박상조 △ 고종배 · 화승인도네시아 △상무이사 김태균 △ 이찬호 △이사부장 박보근 · 화승캐피탈 상무이사 김두환 · 화승R&A △이사 이동훈 △ 오세운 · 화승소재 △이사 김병석 △이사부장 이무정 · 화승엑스피(HSAM) △이사 이윤희 · 화승기차배전(태창)유한공사(HST) △이사 최정두 · 화승인도(HSI AUTO) △이사 이우균 · 화승엑스월 △이사부장 임재현
- ◆S&T모티브 △모터전자사업본부 이사 안재준
- ◆한국과학기술원연합대학원대학교(UST) <실장급> △전략개발실장 오승운 △감사실장 조지용 (팀장급) △교무팀장 김우철 △교육혁신팀장 노현서 △홍보협력팀장 정 윤 △인프라운영팀장 최은영
- ◆한국폴리텍대학 △기획국장 황진호 △운영국장 황선규 △경영혁신팀장 장수홍 △교육훈련연구소장 하정미 △제2융합기술교육원실업추진단장 김봉준 △I 대학 행정처장 김성호 △V대학 행정처장 이연보
- ◆KBS미디어 △부사장 정성호
- ◆전자신문 △주필(상무이사) 김상용 △편집국장 심규호
- ◆일간투데이 <승진> △미디어전략실 부장 이철희 △경영본부 과장 이승희

정일환의 Aim High



사회경제부장

망조 들었다는 한국이 2018년 2.8%, 2019년 2.6%이니 1%대인 독일과 영국은 작년에 부도가 났을 테고 0%대인 일본 경제는 올해 안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태세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율 전망치도 2018년 5.0%에서 2019년에는 4.7%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지구에서 혼자 잘나간다는 미국의 전망치는 -3%로 역성장이 점쳐졌다.

공자의 제자 가운데 증삼(曾參)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집안 사정이 넉넉지 못해 어머니가 손수 짚 옷감을 내다팔아 생계를 유지했다. 어느 날 이웃집 사람이 뛰어와 “증삼이 사람을 죽였답니다. 어서 피하십시오”라고 했다. 어머니는 “내 아들이 그럴 리 없소” 하며 태연히 베를 돌렸다. 잠시 후 다른 사람이 또 나타나 “당신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고요”라고 했다. 어머니는 이번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여전히 베를 앞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또 한 사람이 달려와 “증삼이 사람을 죽였답니다”라고 하자 어머니는 뛰듯이 일어나 담을 넘어 도망치고 말았다. 멀쩡하던 증삼은 살인자가 됐고, 모친은 도망자 신세가 됐다.

자고로 ‘늑대’라고 세 번 외치면 늑대가 나타나고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날뛰기 시작하는 법이다.

지난해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이 ‘2018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8)’을 내놨다. 보고

서는 한국의 2018년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3.0%에서 2.8%로, 2019년은 2.9%에서 2.6%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해 9월 내놓은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18년 한국 경제가 2.7% 성장에 머문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5월 발표에서 예상했던 3.0% 성장보다 0.3%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보고서들이 나오자 외환위기가 다시 올 것처럼 늑대가 울고 호랑이 그림자가 어른댄다. 곧 증삼이 사람도 죽일 기세다. 우리 경제는 정말 침몰할까. 쫓지 마라. IMF와 OECD가 그런 일 없단다.

먼저 ‘국가부도의 날’의 빌런 IMF 보고서를 읽어보자. 쫓리는 기억을 안겨준 저승사자지만, 정신줄 붙잡고 똑바로 쳐다보면 동아줄도 보인다.

2018년은 미국 2.9%, 유로존 2.5%, 독일 1.9%, 영국 1.4%, 일본 1.1% 순서다. 2019년은 미국 2.5%, 독일 1.9%, 영국 1.5%, 유로존 1.4%, 일본 0.9% 순이다.

망조 들었다는 한국이 2018년 2.8%, 2019년 2.6%이니 1%대인 독일과 영국은 작년에 부도가 났을 테고 0%대인 일본 경제는 올해 안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태세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율 전망치도 2018년 5.0%에서 2019년에는 4.7%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숫자를 놓고 일각에선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끼었다”고 호들갑이다.

하지만 지구에서 혼자 잘나간다는 미국의 전망치는 -3%로 역성장이 점쳐졌다.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수출 천재들이 속한 아시아 평균도 1.4%로 우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OECD는 어땠나. 경제전망 보고서(OECD Economic Outlook)를 보면 미국의 2019년 경제성장률은 2018년 2.9%에서 0.2%포인트 하락한 2.7%로 전망됐다. 2020년에는 2.1%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유로존의 경우 2018년 2%, 2019년

1.8%, 2020년은 1.6%다. 일본은 2018년 0.9%, 2019년 1.0%, 2020년에는 0.7%로 내다봤다.

반면 떨어진다든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9년 2.8%로 오히려 높아져 미국을 제친다. 그리고 2020년에는 2.9%로 OECD 성장률 보스로 등극한다.

물론 쓴소리도 들어 있다. 한국이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개혁을 병행하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속도를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2019년 황금돼지 해가 밝았다. 올해 살림살이가 넉넉하리라 말하기엔 현실이 너무 매섭다. 하지만 모름지기 신년 벽두는 희망을 품기 좋은 시기다. 헬스장이 미어터지고 외국어 학원이 붐비는 이맘때, 우리 경제도 올해는 든든한 체력과 글로벌 마인드로 재도약하리라 기대해 본다. 겨울이 깊으면 봄도 머지않은 법이다.

whan@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한국임팩트금융 대표

올해는 따뜻한 금융의 ‘돼지꿈’

이투데이, 말투데이

2019년 기해년(己亥年)의 아침, 황금 돼지의 해다. 예부터 돼지는 매우 길한 동물로 여겨져 돼지꿈을 꾸면 재물이 넘친다고 했다. 게다가 황금돼지라니. 그런데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이 결코 가볍지 않다.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많은 것들을 뒤에 남기고 걸음을 옮기는 느낌이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만 녹녹지 않은 사회의 여건에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다.

한국 경제의 전망이 심상치 않다. 고용,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외환위기 당시 수준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한다. 기업의 설비 투자도 감소하고 경기 체감 심리도 악화일로에 있다. 물가에 대한 불안 속에서 개인들의 소비심리도 위축되고 있다.

그나마 한국 경제를 떠받쳐 왔던 반도체마저 흔들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갈등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도 불안하기만 하

다. 자영업은 위기로 치닫고 있고 일자리는 증가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경제도 문제이지만 사회문제는 더 심각하다. 미래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노년층의 한숨. 기회를 박탈당한 청년들의 좌절. 최악을 치닫고 있는 출산율. 다시 서기를 허락하지 않는 사회.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갈등과 격차. 시급히 풀어야 할 사회문제가 산적해 있다. 사회문제의 골은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깊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 사회가 과연 지속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경제대국을 꿈꾸며 달려왔던 우리 사회는 어느새 세계 최악의 ‘고통대국’이 되고 있다. 다음 세대에겐 힘이 아닌 짐을 넘겨 주지 않을까 걱정이다.

가계 부채가 1500조 원을 훌쩍 넘겼다. 경제성장의 둔화와 금리인상의 여파로 가계 부채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특별히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취약한 금융구조에 대책 없이 노출되어 있다. 심각한 사회경제 여건 속에서 금융마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달 21일 ‘서민금융지원체계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서민층에 체감되는 지속가능한 서민금융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배제된 저신용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 상품개발, 채무자의 특성에 맞는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며, 보다 많은 서민층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의 전달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 중요하다. 서민금융은 결국은 민간이 스스로 담당해야 할 영역이기 때문이다. 금융의 공공성과 포용성이 더욱 강조되는 때이다.

포용금융은 금융기관의 시혜적인 사회 공헌 확대가 아니라 금융기관의 본래 역할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서민에 대한 자금 지원과 채무조정이 결국 금융기관들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결국 금융도 사회 속에서 함께 성장하여야 함을 우리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통해 경험한

바 있다.

‘상선약수(上善若水)’.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다. 물은 밑으로 흐르면서 대지를 적시며 이롭게 한다. 다양한 물들이 함께 낮은 곳으로 흘러 가면서 서로 섞이고 다투지 않는다. 자연을 정화시키며 함께 바다를 만든다. 금융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금융은 우리 사회의 혈액과 같은 존재이다. 혈액은 산소뿐 아니라 단백질, 비타민 등 생존에 꼭 필요한 물질들을 운반에 전달하며 몸속의 나쁜 물질을 배출케 한다. 혈액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침입자가 들어오면 항체를 생산하고 이들을 막는다. 또한 우리 몸속을 돌며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이 좀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금융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다.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서민금융,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임팩트금융이 확장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기자수첩



이주혜 자본시장부/winjh@

우울한 펀드 투자자, 울지만 말 것!

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수익률이 낮다고 급하게 환매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연말에 만난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성과가 좋았지만 올해 다

먹은 셈”이라면서 “그러나 증시에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올해 마이너스를 기록했더라도 내년에 당연히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다행히 전문가들은 올해 증시가 ‘상저하고’를 보일 것으로 내다본다. 그는 “1년 수익률을 두고 일희

일비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펀드 업계 관계자는 “공개된 수익률과 개인별 수익률은 다르다”면서 “펀드는 개별 투자자가 들어가고 나오는 시점에 따라 실제 수익률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펀드가 수익을 내도 문제는 남는다. 펀드는 환매 시점이 아니라 매년 결산 시점에 소득세를 매긴다. 환매할 때 주가가 하락해 결과적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한 해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 올해 수익이 나도 지난해 손실분을 보전해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장기 투자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를 고려할 세제 보완이 뒷받침돼야 한다.

펀드 투자자들은 지난해 우울한 한 해를 보냈다. 수익률이 줄줄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탓이다. 이참에 펀드 투자를 정리해야 하는지 버텨야 하는지 고민하는 지인들도 적지 않다.

특히 주식형 펀드는 국내와 해외 모두 부진했다. ‘검은 10월’을 거치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한국 펀드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증시 폐장일인 12월 28일 기준 국내 주식형 펀드의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은 -17.72%, 해외 주식형 펀드는 -16.04%를 기록했다.

지난해 수익률만 보면 당장 손을 털어버리고 싶은 게 펀드 투자자들의 마음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펀드 수익률에 따라 일

☆ 쿠베르탱이 재현해낸 올림픽 선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가 아니라 이를 위해 분투하는 것이고, 올림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역시 승리가 아니라 참가 자체에 의의가 있다. 우리에게 있어 본질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잘 싸우는 것이다.”

프랑스의 교육자. 스포츠가 청소년의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 그는 당시 고대 올림픽 유적의 발굴이 성공하자, 이를 근대 올림픽대회로 부활시켰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863-1937.

☆ 고사성어 / 괄목상대(刮目相對)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대한다는 뜻으로, 상대방의 학식이나 재주가 갑자기 몰라볼 정도로 나아졌음을 이르는 말. 원전은 삼국지(三國志) 여몽전(呂蒙傳). 오(吳)나라 왕 손권(孫權)이 부하 장수 여몽(呂蒙)이 학식이 없는 것을 염려하였다. 이후 왕의 당부로 학문을 열심히 닦은 여몽이 평소 그를 얕본 재상 노숙(魯肅)에게 한 말에서 유래했다. “선비라면 사흘을 떨어져 있다 만났을 땐 눈을 비비고 다시 대해야 할 정도로 달라져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士別三日，即當刮目相對】

☆ 시사상식 / 메기효과(catfish effect)

미꾸라지를 장거리 운송할 때 수족관에 메기를 넣으면 메기를 피해 다니느라 생기를 잃고, 죽지 않는다. 메기로 미꾸라지를 생존시키는 현상을 기업경영에 접목한 것이 메기효과다. 조직은 다면평가제도와 진급제도, 직무심사와 성과급제도, 신진세력 투입 등 동기를 부여하는 여러 제도를 적용해 정체 현상을 극복하고 생산성을 높인다.

☆ 유머 / 스승의 음악감상법 스승과 제자들이 송년음악회에 갔다. 시작하자마자 졸던 스승이 용케 끝날 때 맞춰 잠을 잤다. 짓궂은 제자가 감상평을 스승에게 물었다.

“훌륭한 음악이네. 마치 내가 큰 연꽃 속에서 잠을 자는 느낌이었다.”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삶연구소장

# ‘대고려전’의 감동, 그리고 남는 아쉬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고려 건국 1100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대고려 918-2018, 그 찬란한 도전’이 성황리에 열리고 있다. 이듬에 걸맞게 국립박물관을 비롯해서 국내외 여러 기관과 개인의 소장품 450여 점의 고려 문화유산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

고려는 통일신라의 문화를 이어받아 찬란한 중세 귀족문화로 꽃피운 시대다. 그들은 생존을 두고 북방의 이민족들과 날카롭게 대립하면서도 개방하고 포용했다. 그 정신은 500년 사직을 지탱한 버팀목이면서 문화를 생육한 자양분의 원천이었다. 이번 전시는 고려의 문화적 성취를 확인하고 공유하는 자리다.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으로 문자 기록과 유물에 기반한다. 기록은 기록자의 입맛에 따라 윤색되거나 폄훼되기 마련이다. 역사혁명을 통해 고려를 뒤엎고 건국한 조선의 관점에서 기록된 고려사가 그렇다. 그러나 유물은 시대를 가감 없이 기억하고 증언한다. 전시장은 그 고려를 기억하고 증언하는 유물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넘쳐나고 있었다.

그 아우성의 무게 때문일까, 전시장이 사뭇 다른 분위기로 다가온다. 구체적인 인물, 대표적인 사건, 시간의 연대기적 흐름을 서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고려 사회를 특징하는 몇 공간을 설정하고 관련된 유물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어서 그럴지도 모르겠다. 세계를 향해 열려 있던 ‘수도 개경’과 ‘고려의 사원’, 고려인이 차를 마시던 ‘다점(茶店)’을 고려미술을 감상하는 무대로 설정한 것이 흥미롭다. 유물의 탄생과 시대적 배경, 미학적 특징은 그렇게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

## 김지호의 古美術을 찾아서

고미술 평론가  
전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지고 있었고 나는 그 무대 속으로 흡입되었다.

관람 동선을 따라 전개되는 고려의 미술은 세속적이면서 초월적이다. 질곡의 삶을 살면서도 고려인들은 아름다움을 사랑했고, 그 마음을 담아 현세의 복락과 내세의 극락왕생을 빌었다. 지극한 신심에 다 그들의 미감이 더해져 궁극의 아름다움이 탄생하는 과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그 중심에 비색정자가 있고 고려 불화가 있었다. 나전으로 만든 불경함은 세밀해서 아름다웠고, 무쇠로 빛은 부처님은 거칠어서 성스러웠다.

걸음이 나아가면 새롭고 멈추면 찬란했다. 아득하게 펼쳐지는 아름다움이 지극해서 두려웠고 두려워서 전율했다. 그 아름다움은 미의 법문(法門)이 되어 소나기처럼 쏟아졌고, 나는 그 소나기를 온몸으로 맞아냈다. 그리고 그들이 꿈꾸던 아름다움이 마침내 나의 아름다움이 되었다. 500년 고려의 아름다움은 그렇게 나를 정화하고 있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역만리 타국에서 고향을 찾은 명품도 여럿 만나게 된다. 명품은 유랑과 유전(流轉)의 운명을 타고 난다지만, 대면하는 기쁨은 잠깐이고 각각의 사연을 기억하는 고통은 오래간다. 나는 청자피리 앞에서 오래 머물렀고 천수

천안관음상에 합장 배례하며 재회를 염원했다.

아쉬움도 없지 않았다. 무릇 전시란 관람자가 몰입하고 감동받도록 해야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최선(最選)의 전시품을 준비하고 관람자를 매혹하는 진열과 연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공간 연출은 거칠었고 작품의 배치가 뒤섞인 탓인지 관람 동선은 자주 엇갈렸다. 공간과 유물이 부합하지 않는 곳도 더러 보였다. 그리고 고려의 섬세한 아름다움은 디지털 영상기술을 통할 때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 풍요한 한 금속활자 한 점을 멀뚱멀뚱 쳐다보며 고려금속활자의 위대함을 떠올려야 하는 민망함..., 전시장 곳곳에서 노정되는 디테일의 부재가 오래도록 눈에 남았다.

고려 건국 1000년이 되던 해는 일제강점기라 우리는 기념하지 못했다. 굳이 그 불편한 기억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이번 특별전은 100년의 지혜와 역량이 모아져야 했다. 다양한 시각과 창의적인 기획으로 5년을 준비해도 넘치지 않을 터, 1년 수개월 만에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용기가 놀라울 뿐이다.

사족으로 덧붙인다. 전시는 정치적이어서는 안 되지만 누군가의 삶을 고무하고 사회변화를 염원하는 메시지를 담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유물을 통한 희망대사(希願大師)와 태조 왕건의 만남을 기획한 것은 멋진 아이디어였다. 그러나 그 아이디어는 매끄럽지 못한 준비로 소란을 불렀고, 그 소란이 이번 전시의 미흡함을 다 덮어주었다. 이 무슨 조화(造化)인가!

## 시설

### 성장·수출·고용절벽, 돌파구 찾아야 한다

2019년 새해가 밝았다. 이 아침 희망과 기대보다 불안이 앞선다. 올해 대한민국 미래의 시계(視界)는 한 치 앞도 가늠하기 어려운 안갯속이다. 번영과 쇠퇴의 기로에서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위협 요인만 부각된다.

한국 경제는 지난 한 해 뒷걸음질했고 국민 삶이 더욱 고달파졌다. 성장률은 추락하고 투자는 감소했으며 실업자는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다. 소득분배 악화로 빈부격차 또한 최악이다. 2019년 전망은 더 암울하다. 국내외 연구기관의 성장률 전망치는 2.5% 안팎인데, 이것도 달성하기 쉽지 않다. 2017년 3.1%, 작년 추정치 2.6~2.7%에서 급속한 하강으로 장기 저성장의 고착화다. 성장판이 닫히면서 투자와 소비, 일자리 어느 것도 살아날 기미가 없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증가세마저 올해는 확 꺾일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미국과 유럽 연합(EU), 일본 등 선진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의 내리막 추세가 뚜렷하고, 미중 무역전쟁의 재연 우려도 높다. 보호무역 확산은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다. 사방에서 먹구름만 몰려오고 있다.

올해 한국 경제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성장·수출·고용의 절벽, 민생의 위기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성장이 멈추면 망하는 경제, 희망이 사라진 사회, 늙어가는 나라로 고꾸라진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빈곤은 심화한다. 성장이 반짝주지 않는 분배나 복

지는 허구다. 성장만 한 분배정책은 없고, 일자리 없는 곳에 지속 가능한 복지가 존재하기 어렵다.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성장에 두고, 분배와 복지를 앞세워 경제를 발전시킨 나라 또한 없다.

성장이 막다른 벼랑 끝에 몰린 한국 경제의 유일한 탈출구다. 새로운 성장 여젠다, 성장과 일자리의 끊어진 연결고리를 다시 잇는 전략 재점검과 과감한 실행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코앞의 위기에 눈감고, 오히려 성장 패러다임까지 부정하면서 세금 퍼주기식 복지에만 골몰하고 있다.

경제의 성장 DNA를 되살리는 것만이 해결책이다. 시장경제의 기본과 원칙이 길인데, 거꾸로만 가고 있는 게 문제다. ‘소득주도 성장’이니, ‘경제민주화’니 의도는 좋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어떤 역풍을 불러오고 있는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다. 재벌개혁을 앞세운 포퓰리즘적 반(反)기업 규제, 폭주는 기업가정신을 죽이고 투자를 위축시켜 일자리 사정만 더 악화하고 있다.

경제와 민생의 악순환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다. 대통령 지지율은 절반 이하로 추락해 국정 동력마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성장엔진 복원을 위한 전환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희망 없는 2019년 한국 경제다. 정말 규제혁파와 노동개혁, 산업 구조개혁이 급하다. 이것부터 해결해야 한다.

## 성시종의 서킷브레이크



자본시장부 차장

### ‘공염불’ 그친 코스닥 활성화 대책

진입할 수 있도록 상장제도를 정비하고 KRX300지수를 출시했다.

이 같은 기대감으로 올해 코스닥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거래대금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 1996년 코스닥시장 개장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코스닥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은 그야말로 쪽박을 찼다.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코스닥지수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격화,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 등의 악재가 정책 기대감을 반감시켰기 때문이다.

예상치 못한 글로벌 경제 상황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내 정책마저 투자자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면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코스닥 지수를 떠받치던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연구개발(R&D) 비용 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가 코스닥 지수 급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또 정부 정책과는 달리 연기금은 연일 코스닥시장에서

매물을 쏟아내고 있다. 증권가에선 국민연금이 안호준 신임 기금운용본부장(CIO) 취임 후 변동성이 큰 코스닥시장 비중을 줄이고, 배당률이 높은 유가증권시장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해석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실제로 올해 코스닥 시총 1조 기업은 1년 새 30%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만 믿고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코스닥시장에 대거 유입됐지만 결국 개미무덤이 되고 만 셈이다.

지난해 실패로 돌아간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올해는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를 돌아켜 보면 결국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 규제 완화나 기업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추세적인 코스닥 상승을 기대하기 힘들다. 미미한 코스닥 펀드 결성 등과 같이 언발에 오줌 누기식 지원은 곤란하다. 지난해 개미무덤이 된 코스닥시장이 올해는 빛을 볼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때다.

ssj@



### 무탈(無傾)하소서!

2019년 1월 1일, 새해를 맞으며 덕담인사를 나눈다. 덕담은 ‘德談’이라고 쓰고 각 글자는 ‘큰 덕’, ‘말씀 담’이라고 훈독하며 ‘남이 잘되기를 비는 말’이라는 뜻이다.

새해맞이 덕담으로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복 많이 받으십시오’인 것 같다. 국어사전은 ‘복(福)’을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한자 ‘福’은 ‘示+畝’로 이루어진 글자인데 ‘畝’는 다시 ‘酉+土’의 구조가 간략화한 형태로서 ‘酉(술 주)’는 술을 담는 그릇이고, ‘土(조개 패)’는 조개껍질로서 옛날에 화폐 대용으로 사용하던 것이다. 그러므로 ‘福’은 제사상을 형상화한 글자이다. 그러므로 ‘福’은 제사상 위에 술이나 재물을 차려놓고 뽕기를 비는 모습을 나타낸 글자이다. 간절하게 빚으로써 하늘로부터 받는 어떤 ‘좋은 것’을 일러 福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도 새해면 으레 하늘로부터 복을 많이 받으라는 덕담인사를 하곤 하는 것이다. ‘만사여의(萬事如意)’, 즉

“모든 일이 다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빈다”는 덕담도 하고, 더러 ‘만사형통(萬事亨通)’이라는 말도 하는데 이는 만사가 다 시원스런하게 잘 풀리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그런가 하면 무탈하라는 덕담, 즉 새해에는 그저 아무 말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라는 말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탈’을 순우리말로 알고 있으나 이는 사실 한국에서 발생한 순수한 한국 한자로서 ‘傾’이라고 쓰며 ‘뒤편에 일어난 걱정할 만한 사고’나 ‘몸에 생긴 병’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따라서 ‘무탈(無傾)하라’는 말은 곧 걱정할 만한 사고나 병이 없이 평안하고 건강하게 지내라는 뜻이다. 중국어 사전에서는 ‘傾’을 ‘顛(턱 이)’와 같은 글자라고 풀이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어떤 연유 우리나라에서는 ‘탈’이라는 음과 뜻을 갖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받는 복이 크면 클수록 좋겠지만 무탈한 것만도 이미 큰 복이다. 새해엔 모두 無傾하소서! 전북대 중문과 교수

이투데이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2019년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합니다

L  
M O V E  
V  
E

가장 따뜻한 새해 아침

온미음 밝게 감싸는 새해 첫 태양처럼  
사람을 위한 기술로

모두가 따뜻한 미래를 열겠습니다

미래엔 기술만 발전해선 안되기에  
기술의 MOVE를 넘어 당신의 LOVE로

**HYUNDAI**  
MOTOR GROUP



2019.1.1



자연은 더 깨끗해지길  
Clean Mobility

친환경 자동차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모빌리티 세상을 만듭니다



사람은 더 편안해지길  
Freedom in Mobility

자율주행과 로봇기술로  
사람의 한계를 넘어 모두가  
편리한 미래를 만듭니다



기술은 더 따뜻해지길  
Connected Mobility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람과 세상을 연결하는  
초연결 사회를 만듭니다

